

三. 調查 內容

1. 구온양시

가. 구온양시 마을 1 (신정동)

1) 조사 일정

1993. 1. 18., 박미애 기록

조사 첫날인 1월 18일 오후 2시에 숙소를 출발하여 온양시 천도노인회관에 찾아가니, 노인이 약 삼십여 명 있었다. 우리들의 조사 취지를 설명하니, 대부분의 노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남석희씨가 <가난한 효자 이야기>, 남봉우씨가 <청댕이 고개 밑의 효자바위> <맹정승의 청렴한 생활> <밤모양의 버드나무를 먹고 죽은 이지함> 정동환씨가 <박어사의 실수> <풍수지리에 밝은 박어사> <가난한 선비를 도운 숙종대왕> <신령의 도움으로 장원 급제한 선비>를 구연해주었고, 이한영씨가 <서고청의 일생과 달성서씨의 유래>를 해주었다. 이야기가 한참 흥이 날때 노인회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다음날을 기약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1) 조사 일정

1993. 1. 19., 이미진 기록

조사 둘째날 10:30에 숙소를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천도 노인회관에 11시 30분에 도착했다. 마침 노인들이 열다섯 명 정도 있었는데, 어제 <서고청>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이한영씨가 그 뒷얘기를 마저 해주었고, 서병환씨가 <이천 서씨 유래>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테이프를 갈아 끼우던 중에 카세트에 문제가 생겨 오후에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노인회관을 나와 오후1시에 점심을 먹고 일행을 둘로 나눠 한팀은 카세트를 바꾸기 위해 숙소로 가고 다른 한팀은 효자바위가 있다는 곳을 찾아나섰다. 효자바위를 찾아 사진을 찍고 비문을 적은 후 다시 노인회관에 모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 날을 약속하고 온양시청에 가서 마을개관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에 숙소로 향했다.

2) 마을 개관

【구온양시 마을 1】

337-010 충청남도 온양시 신정동

1993. 1. 18., 방지선 조사

신정동은 도시의 분위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마을이고 많은 호텔과 여관들로 인하여 온천 관광 도시의 핵심부임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부락의 이름은 없다. 총 인구는 12,520여명이고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도시이

기 때문에 청장년 층이 더 많다. 주민들의 직업은 음식 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농림업, 제조업 그리고 소.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생활 정도는 전반적으로 나쁜 편은 아니다. 신광 국민학교가 있고, 우체국, 경찰서, 시청 등 행정.공공 기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 또한 편리하다.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가 대부분이다. 마을의 전체적인 인상은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활기에 찬 도시라는 것과 현대적이면서도 단조로운 모습이 엿보였다.

3) 구연자

【신정동 구연자 1】

온양시 온천1동 92-11, 남석희(南碩熙), 남, 70

1993. 1. 18., 이상은 조사

약 40년째 이곳 온양에서 살았다는 남석희씨는 비교적 깔끔한 용모로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세련된 노인이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고 조사자가 한참을 줄라서야 간신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구연하는 동안에는 큰 제스처를 쓰면서 청중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해시키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노인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울바위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구연했을 뿐이었다.

【신정동 구연자 2】

아산군 탕정면 용두리, 남봉우(南鳳祐), 남, 77

1993. 1. 18., 이상은 조사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봉우씨는 자신을 유도회(儒道會)의 충남 부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이곳 온양에서 13대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탕정면의 면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양복기에는 유도회의 금색 뱃지까지 달고 있었으며, 다른 노인들은 이분을 이 지방 유지로 여기는 듯했다.

우리의 요청에 두고있던 바둑까지 미루며 기꺼이 이야기해주려 했지만 이 지방의 토속적 전설, 민담 등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젊은이들이 노인회관에 온 것을 기특해하는 눈치였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고 줄거리만 말해서 대강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청중들은 대개 각자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며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청댕이 고개밑의 효자바위>, <온양온천 유래>, <배방면 유래>, <맹정승의 청렴한 생활>, <밤모양의 버드나무를 먹고 죽은 이지함>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신정동 구연자 3】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정동환(鄭東煥), 남, 76

1993. 1. 18., 이상은 조사.

정동환씨는 원래 경기도 안산 출신으로 온양에 큰집이 있으며 이곳에 온 지는 서너 달이 됐을 뿐이라고 한다. 머리, 눈썹이 모두 하얗다. 선글라스를 쓴 이 노인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이야기 하나를 끝낼 때마다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소리내어 ‘하하하’ 웃기도 하였고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이 구연하는 동안에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들 옆으로 조용히 다가앉아 구연해주겠다고 자청하여 이야기를 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풍수지리에 밝은 박어사>, <박어사의 실수>, <가난한 선비를 도운 숙종대왕>, <신령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한 선비 이야기>가 있다.

【신정동 구연자 4】

온양시 방축동 주공아파트 103호 202호, 이한영(李漢永), 남, 75

1993. 1. 18., 이상은 조사

이한영씨는 원래 예산 출신이며, 온양에 산지는 50년이 넘었다고 한다. 고령에 비해 매우 정정한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였다. 다른 노인들이 이한영씨를 ‘이야기 박사’라며 추천해 주었는데 실제로 조리있게 이야기를 잘 하였고, 한참 이야기에 열중할 때는 아주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며 구연하였다. 예전에 공주 공합사람들로부터 들었다면서, <서고청의 일생과 달성 서씨의 유래>를 해 주었다.

【신정동 구연자 5】

온양시 일동 299-5, 서병한(徐柄翰), 남, 77

1993. 1. 19., 이상은 조사

온양에서 43년째 살고 있다는 서병한씨는 한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인자한 인상 그대로였다. 서씨라고 해서 서고청 쪽이냐고 물어 보니까, 자신은 이천 서씨라고 하면서 <이천 서씨 유래>를 들려 주었다.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조상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몸은 건강해 보였지만 노령 때문인지 발음이 상당히 불명확했고, 구연 도중에 다른 노인들은 한두 명 듣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4) 설화 자료

【신정동 설화 1】

온양시 신정동, 천도노인회관, 1993. 1.18., 박미애, 방지선, 이상은 조사

남석희(남, 70)

가난한 효자 이야기

신정1 앞

에, 풍기리같은 동네에는 원래가 거 (조사자: 풍길이요?) 예 그래 거기가 풍기리여, 밤줄. (조사자: 밤줄?) 청댕이 고개 바로 미티 동네가 바로 밤주리올시다. 밤주린데, 지금 얘기로 풍기리라고 돼 있죠. 예, 풍기리. 풍년 풍(豊)자하고 터 기(基)자. 그 하두 예 송년은 들고 또 흥년들이니까 역시 먹을 게 없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 눈은 잔뜩 쌓였는데 부모에게 밥 한 건이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영 드릴 거리가 없으니까 시내를 배회하고 근동이 돌아다니면서 은어다래도 뭘 드려야겠는데 또 역시 거리가 비차가 없으니까 오다보니까 말하자면 말은 흉하지만, 개가 먹은 예? 먹구서 퇴해 놓은¹⁾ 그것을 씻쳐다가 그 부모에게 공경했다는 얘기가 그게 전설이예요. 근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역시 그것이 요새 고담으로 나오고 있죠.

【신정동 설화 2】

온양시 신정동, 천도노인회관, 1993. 1. 18., 박미애, 방지선, 이상은 조사
남봉우(남, 77)

신정1 앞

청댕이 고개 밑의 효자 바위, 맹정승의 청렴한 생활, 밤모양의 버드나무를 먹고 죽은 이지함, 토정보다 용한 등짐장수.

모를 심을 땐데, 뭐하냐하면 어려울 때니깐 모를 심으러 갔단 말여. 청댕이 고개여. 청댕이 고개. 그 저, 청댕이라구 있지? (조사자: 예) 온양면에 넘어가면 청댕이 고개라고 있어요. 그 밑이 뭐냐며는 근디 효자 바위란 게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여. (청중: 부대 앞에 있는, 없어졌어.) 있었는데 예, 그 지금 그대루 하구서 모를 심으러 갔는데 모심는 도중에 막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구 천둥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벼락을 때릴라구 이렇기 천둥번개를 하니깐 거기는 사람들이 “죄진 사람은 나오시오, 예? 자진해서 나오시오! 여러 사람이 죽을 죽을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 내가 그저 우리 그러니까 그 어머니지 아버지 시아버진지 몰라도 개똥을 그 개가 먹을 보리쌀을 어, 참 그냥 새기지²⁾ 않고 눈 거를 깨깡이 딱아 가지고 밥을 해드렸단 말이야. 그런 죄가 있으니까 인저 자기가 나오니까 그냥 바람에 뉘다 저 그 여자를 큰 바위위에다가 올려놓구서 거 벼락을 때렸어요. 그래두 사람은 괜찮구 바위가 쪼개졌는데 거기서 금항아리가 나왔다 이기여.(웃음) 그래서 효자 바위라고 하는 거.(웃음)

군봉이 있는데 낚시질을 좋아했디야. (조사자: 네?) 낚시질. 노는 때는 낚시를 이렇게 좋아했던 말여. 근데 또 어떤 근방 노인이 낚시를 댕겼어요. 근데 그게 정승인지 몰랐지. 한번은 널 아침 널 널 우리 집에 좀 오슈, 내 생일이니. 아 가보니까 고관들이 막 모이고 했는데 전연 그 떡거무리 촌놈같이 행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그 참 으실으실하거든. 그래 가지구 그분이 참 그 전연 여러 날 같이 마실을 했어도 자기가 정승이란 말 안 했어. “어디 저 세일산의 세일이란 동네데 그 맹첨지다. 난 맹첨지여.” 그렇게만 얘기했던 말여. 그렇게 하

구서 그 생일 때 가보니까 그렇게 그냥 정승이 생일이니까 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왔겠지. 그런 저기가 있어.

(조사자: 토정 이지함에 대한 전설같은 거 없어요? 얘기.) 토정이라는 게 저기지 뭐 그 아산 현감을 했는데 아산 현감. (조사자: 현감?) 아산이라구 여기가 저 아산군 아니야! 여기가. 여긴 온양시지만 아산군이 따루 있다구 그 전엔 아산군이었는데 여기서 한 이십 리 가며는 아산 아산 읍내가 있는데 예전엔 그 고을이었어. 여기는 온양군 아산현. 그런데 거기 원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철학가였던 모양이야. 철학가. 앞 일을 잘 안단말야. 그런데 예, 토정이 뭘 많이 먹었나하면 지네를 많이 먹었대야. 지네. 지네를 많이 먹었는데 지네에는 뭐가 좋으냐 하며는 밤이 좋다 그래. (조사자: 아 밤을?) 밤을 그렇게, 그저 아 그 누구 밤을 깎아 오라구 하니깐 저 버드나무를 그 밤마냥 깎아 가지구 줬다는 거야. 그걸 먹구 죽었어요. 알구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먹고 죽었다는 거야. 해해. 토정이 그걸 먹구 죽었다는 거야.

토정이 글썽 그 저 말에는 그 큰 해일이 되 댔던 모양이지. 그 근처가 바다가 가쳐우니깐. 해일이 댔는데 그 물에서 한번 넘어오니깐 물을 피해가지구 바다가 넘쳐 들어오니까 산으로 올라갔던 모양이야. 근데, 어떤 등짐장사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등짐을 이렇게 (손짓을 하며) 받쳐놓거든. “휴” 하구서니 “여기면 되겠지” 하고서 지개를 내려 놓더라. 근데 물이 그 등짐 그 지개 밑까지 올라왔더라. 토정이 보니까 그랬더라 이기여. 토정보다 더 용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기지.(웃음)

【신정동 설화 3】

온양시 신정동 천도 노인회관, 1993.1.18., 박미애, 방지선, 이상은 조사

정동환(남, 76)

박어사의 실수, 풍수지리에 밝은 박어사, 가난한 선비를 도운 숙종대왕, 신령의 도움으로 장원급제한 선비

신정 1 앞, 뒤

암행어사 박어사가 그 어떤 사람이 쫓겨오는 거를 뒤에서 나를 죽일라구 죽일라구 쫓아오는데 좀 숨겨달라구 그래 거 저기에다 파묻어놔는데 아 뒤에 사람이 쫓아와서 죽치니까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 그 사람을 잡혔단 말여 잡히게 했다구. 아, 왜 그 못 가르쳐주구 여기, 저, 세경황세³⁾를 하고 갔으믄 그 사람 살릴걸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 거 박문수보다 더 용한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사람, 박문수는 그 사람을 못 살렸는데 그 조그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박문수 박어사가 어디를 가 보니까 그 산에다가 묘이⁴⁾를 (조사자: 묘이요? 아, 묘여?) 묘이를 쓰는데 아 거기다 쓰면 금방 망할 자리에다가 쓰거던. 그래 쫓아 올라가서 “그기 묘이자리 누가 잡아줬느냐?” 그러니까 저 아무 할아버지가 잡아줬다구 근개 거기 쫓아가서 “우짜 그런데다 잡아줬느냐? 거기 금방 망할 자리에다 잡아 줬느냐?” 그개 아 거기 거기다 쓰는

금시발백⁵이라구 (조사자: 금시발백이요?)에, 금시발백이란 말여. 이제 이 때에 곧 복이 된다. (조사자: 이제 금자.) 이제 금(今)자 때 시(時)자 발복(發福) 복을 발한다 말이며.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은 그걸 그걸 몰르는데 그 아래다 쓰면 좋은 자런데 그 아래다 써라 그라구서 그저 돈을 많이 주었어야. 그저 돈을 많이 줬어야. 그 돈을 많이 줬으니깐 금시발복이 아냐? 그렇게 지관들이 용하디야. (웃음) 그런 사람을 봤다구.

숙종대왕께서 저녁에는 순회를 돈단 말여. 근데 한 군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문틈으로 엿을 봤지. 상 상제가 소리를 하구(조사자: 초상났나봐요?) 응, 여 상제는 곡을 하구 그래야 할텐데(소리를 한다는게 무슨? 노래) 노래하고 중이 여승이 춤을 추구 노인이 탄식하구 있단말여. 거 이저 아 이상스럽잖어? 상제가 춤을 추구, 아니 상제가 노래를 하구 아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 아녀. 셋이 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구서 들어가서 곡절을 물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가난한지 며느리 며느리가 머리를 깎아서 그 그 머리로 다리⁶를 맨들여 가지구 (조사자: 다리요?) 다리 다리. 다리라 구르는게 왜 예전에 머리적은 사당들이 머리대신 이렇기 대는 다리가 있단 말여. 그걸 해서 팔아가지구 (기침) 저기 시아버지 밥을 해드렸단 말여. 그러니까 (기침) 여승은 머리를 깎았으니까 여승으로 봤지. 여승은 아니지. 그래서 상가 노인은 노인 그걸 먹자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잖어. 그걸 잘 넘어가지 않지. 그래 그, 저, 그 어떻게 좀 구해줘야겠는데 상제는 자기 어머니가 죽었디야. 그 저게 노인네 부인이 그러니 상제는 정말 상제지 그래서 그 집을 좀 구해줘야겠는데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단 말이며. 그래 아무 날은 자기는 임금이라 소리 안 하구서 그냥 이침지라 이렇게 하구서 내 어느 때 과거를 나올테니까 그때 과거오라구. 그래 그날을 기둘러가구 과거를 보러 갔잖아. 숙종대왕께서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하면 상가승무노인탄⁷이라.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여 중승(僧)자, 춤출무(舞)자, 노인탄, 그래서 그 아 저기 만조 그 저게 사망 선비가 구름 모이듯 했는데 그걸 풀 수가 있어야지. 글 한귀 못 짓구서들 있잖어. 근데 그 노인네 그 한분만 와서 그걸 해석해서 글 지어 올렸지 뭐. 그 노인네 벼슬해 가지구 (웃음) 그래서 그 노인네 벼슬해 가지구 잘 살게 해 줬디야.

저 경상도 사람이 과거를 보러 옛날에는 이제는 걸어 대녔으니까 뭐 경상도에서 과거보러 올라 며칠 걸렸단 말야. 그래 저 문경세계 거길 넘어오는데 아 날이 저물고 인가는 없고 아주 무인지경 아녀. 거기에 한 군데 불이 반짝반짝해서 거기를 찾아갔잖아. 헤매구서 그리 들어갔지 뭘. 그리 들어가서 보니까 참 일등미인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구 있거던. 그래 이제 인기척을 하구 채워달라구 그러니까 저 옷방에 가서 자라구 그래. 옷방에서 자구 그리구 그 부인은 아랫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과거 보러간 사람이 보니까 아 어떻게 미인인지 이쁜지 저 인물이. 아, 같이 살자구 그랬네. 그러니까, 내가 글 한귀를 질 것이니 그 짝을 채우면 살구 그 짝을 못 채우면 저 - 좋아될 맛을 줄 알라. 그렇게 계약을 하구서 계약을 그 여자가 우뚝게 글을 쫓냐하면 ‘금일금야에 백년기약⁸’이면 이렇게 짓구서 그 아래쪽을 채우라는 기여.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래쪽을 금일금야에 백년기약이면 잘 산다는 이야기만 전부 쪽 자꾸 지니까 그거 아니라구 그거 아니라구 아 밤새도록 했어야 거기 짝을 못 채웠단 말여. 그러니까 그냥 날이 흐름하게 새게 됐는데 그럼 종아리를 좀 맞으라구 종아리를 훌훌 때리거든. 그래 그쪽이 뭐냐? 이제 그러니 금일금야에 백년기약이면 고부는 황천명이라. (조사자: 예?) 고부는 황천명이라. 옛 지애비는 자기 남편을 하는 말이지. 고부는 황천명이라, 황황천에서 온다. 그걸 모 모르느냐구.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게지. 금일금야에 백일기약이

면 고부는 황천명이라구. 그걸 그래가지구 좋아될 실컷 맞구서 뒤통수만 떨구서 새벽에 그냥 서울로 올라갔단 말야.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서울 가서 아 지팡을 하나 얻을라구 얻을라구 돌아다니니까, 돌아당기다 어떤 참 이상한데 그만침이나 미인이 아 이리 들어오라구 손짓을 한단 말야. 그러니까 여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없단 말야. 그 저기 건너방 이렇기 다락에 아니 건너방 뒤 창문이 있는데 그리 명주 수건을 내려보내서 그걸 타구서 들어갔단 말야. 아 근데 이번에는 그 여자가(기침) 금일백년회로하자구 간청을 한단 말야. 근데 이 여자는 그 그거는 좀 혜택을 해나 블라구 그러믄 내가 글 한 귀를 짓겠으니 그 짝을 채우면 살고 그 짝을 못 채우면 못 산다. 인제 일단 남자가 인제 뺏덴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두 밤새도록 저두 못 짓더라. 그 사람하구 살 욕심에. 그래서 아 인저 부유하게 새게 될 적에 그래 거 저기는 저 회초리도 없구 잔 막대기로 내려서 쫓단 말야. 그래 잔 막대기를 훌훌 후리면서 금일금야에 백년기약이면 고부는 황천명이라. 이걸 모르느냐구 훌훌 은어 맞었던 말야. 그때 마침 이정승이 이제 며느리 혼자 자니까 순회를 한 바퀴씩 돈단 말야. (조사자: 이정승요?) 이 정승집이. 그 집이 이 정승집인디 며느리가 예 저기 남자를 불러들였단 말이지. 근데 어떤 남자가 며느리 종아리를 훌훌 후리면서 금일금야에 백년기약이면 고부는 황천명이라. 이걸 모르느냐고 호령을 하면서.(조사자: 그까 이정승이 보니까 종아리를 때리니) 응, 종아리를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벼슬을 시키면은 참 저기 (조사자: 잘 할 것 같다) 잘 할 것 같다. 아 여간 청백히야?) 아 어떤 사람이 여자가 그렇기 대드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자기 벼슬한 벼슬해러 올라온 애기하구 어, 그라구 아 이정승이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날까를 전부 애기해주구 그래가지구 그 사람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구서 그래가지구 저 장원을 했지. 장원급제를 해가지구 그래서 그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디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급제를 해가지구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오다가다 겪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됐거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거기서 여자말만 들었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사람이거든. 순회를 날마다 도는데 거(기침), 근데 가보니께 거기 오막집도 없고 그 바위 밑에 그 ,저, 자기 매 맞은 매맞은 회초리 밖에 없더라. 그래 산신령이 신령이 거 지시한 저기 사람두 아니구 신령이야.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구서. 그 벼슬할라면 그렇게 다 (웃음) 저기가 있어서 다 들여다보는 영갓이라도 내려다 봐야 그런 큰 벼슬을 하게 되는 거라구.

【신정동 설화 4】

운양시 신정동 천도 노인회관 1993. 1. 18., 박미애, 방지선, 이상은 조사
 이한영(남, 75)
 서고청의 일생과 달성 서씨 유래

신정1 뒤

옛날 애긴데, 공주에서 대전을 갈라며는 공주 공합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를 가며는 신작로 가세 이런 돌로 된 데 굴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 보며는 서구청 탄상지이라구 있어. (조사자: 서구청요?) 예 서구청. (조사자: 서구청) 근데 서구청인데 옛날 어른들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려. 서구청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누군고 하니 (조사자: 서고청 아니에요?) 응, 서구청. (조사자: 서구청? 아 서고청이다. 서고청) 알아들? (조사자: 아뇨 그 애기

듣고 싶어요. 서고청이란 사람 이름만 알아요.) 응 그 분이 워떻게 해서 탄생했느냐면 거기 가서 굴 앞이를 내가 현지에 목적지를 본 봤어, 거기서. 거기 서씨네들한테 얘기를 들었어. 거기 가며는 서씨네가 집단적으로 많이 살아. (조사자: 응)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일정한 때 그 전쟁 피해가서 거기 가서 일하냐라고 있다가서 거기 가서 살았거든? 그래서 그거 내력을 아는데 그 굴 앞에다가서 뭐라고 하고 하니 ‘서고청 타생지지’ 라고 이렇게 들로 새겨놨어 아주. (조사자: 네.) 근데 그게 공주에서 대전가는 길갓이여. 그런데 그 옆이에 김씨네라는 양반집에서 하는 처녀 하나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 (조사자: 아, 김씨 양반집에 어떤 처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구요?) 응, 종살이. 근디 과년한 처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례가 없지. 그전이는 논에다 오례 이룬벼 오례를 심었거든. (조사자: 오례가 뭐예요?) 이룬 벼, 오례. 일룬 벼, 추석 때 먹는 벼. 일룬 벼를 심었는데 처녀더러 너 가서 오례논에 새를 보라. 이 얘기를 하거던. 그러니까 (조사자: 새를 보다뇨?) 새, 새가 와서 벼를 미리 다 까먹어. 새를 보라 그러니까 그 새를 보고 가서 있노라니까 쏘내기가 냅다 쏟아진단 말여. 그러니까 그 굴로 피해 들어 갔어. 근데 인저 공주에서 대전을 가는 신작로 등짐장사 땡기는 신작로니까 등짐장사가 공주에서 대전을 가다가서 쏘내기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굴 속으로 썩 들어 갔단 말여.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과년찬 처녀가 있거든. 그러니까 등짐장사가 과년찬 처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 응? (조사자: 하하, 네.) 그래서 그 처녀하고 등짐장사하고 굴 속에서 그 쏘내기를 피했던 말여. 피하구서 갔어, 인저. 가서 그 처녀가 등짐장사가 가니까 8월달이니까 7월달이니까 주적삼을 입었어. 주적삼을 입었는데 등짐장사가 가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구서 적삼 소매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에. 그 적삼소매를 잡으니까 적삼소매 여가 툭 떨어졌어, 적삼소매가. 그럴 꺼 아냐? 소매를 잡으니까 뽕 뿌리치고 가니까 툭 떨어졌지. 그 처녀는 그 적삼소매를 깃말에 다 끄리고 있고 (조사자: 예?) 처녀는 적삼소매 끊어진 거를 빨지 않고 고양이 깃말에 끄리고 대니는 기여. 깃말에다가만히 끄리고 다녀. 그러구 등짐장수도 역시 그 적삼을 빨지 않고 고양이 싸가지고 대니는 기라, 응? 싸가지고. 얘기를 들어 봐. 그래서 인저 그 열 달이 지나서 어느 날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 처녀가. (조사자: 예.) 그 처녀가 그러디 그 처녀가 서고청이여 (조사자: 그 애가, 그 처녀가 난 애가.)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처녀가 그 거기 와서 총각을 만나던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꿀 적이 공주 계룡산을 능큼 집어먹었다는 얘기에. 집어 먹었는데 그 놈을 다 집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집어 먹다가 샷샷만큼 냉겼디야. (조사자: 웃음) 샷샷만큼 냉겼다는 얘기에. 그래가지구서 인저 그 과년차 아들을 낳아 놓구서는 그 양반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조사자: 구박 엄청 받았겠네요.) 사는데 그래도 양반네 집에서 종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도 공부를 가르킬라고 예전에는 옆쪽에다 책 책을 쥐고 글방엘 땡겼어. 글방에 가는 땡기는디 땡살 먹어서도 글방에 땡기는디 한 자 일러주면 두 자씩 알아. 응! 그래다가 열 땡살이 되니까 선생이 볼 적에 이게 보통 애가 아니거든. 하루는 선생이 그 집, 양반네 집에 가서 “쌤님, 쌤님.” “왜 그러냐구.” “애는 쌤님네 집에다 오래 두고 있을 수 없는 앵니다.” 응? 그러거든. 그러디, 그렇게 하고 간 뒤에 글방에 땡기는디 애가 땡기매는 하는 얘기가 “글방에 가며는 제는 저의 아버지 없는 애라고 송들을 봐, 친구들이.” 저 저 어머니보고 와서 얘기를, 얘기를 안일러줘. 안일러줘. 그러나 저나 글방엘 땡기는디 그 집에 양반네 집에 당나구가 있어, 당나구. 그래 아침 먹구서 당나구를 끌구 나간단 말여. 나가고 저녁 때 들어올 때는 끌어 들어와. 그런데 당나귀는 풀을 내려 뜯어. 이렇게 물고 이렇게 이렇게 뜯어 (몸동작을 하면서). 올려 뜯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없지. 그러니까 만날 연한 데만 갖다 땡다는 얘기에. 그 주인이 볼 때는 풀이 좀 좋은데 갖다 봤으면

좋겠는데 응? 그런데 매거든. 그래 하루는 주인이 불렀어. “애, 애 구청아, 구청아.” 불려서 왜 그러냐 그러니께. “너 어디 당나구 그저 풀 좀 좋은데 갖다 매지 구런데 매니?” “당나구는 힘이 없어서 연한데 갖다 풀을 매야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께는 이런 이런 풀 크는 게 뵈여? 7월 8월이니께. 당나구를 매는 게 7월 8월이거든. 그 샌님이 사랑방에서 부려서 데리구서 얘기를 하니께는 웨라고 하시고 하니 풀 풀이 저렇게 뵈는데 샌님은 뭘 보느냐는 얘기에. 응, 네나 풀 크는 게여. 저 담이 저 담이 호박 넝쿨이 죽죽 번어나는데 그것도 안 뵈여? 눈 가지고 뭐 뭐 뭐 봐요? 그러더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칭중 중에서 먼저 간다고 하자) 그래 먼저 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구서 그 이튿날 아침이는 너 내 거기서 공주 공왕서 놀며 갱갱이가 70리리라. 너 널 아침 널 아침 일라면 우리 당나구를 놀며 갱갱이 들이 풀이 좋디야 거기 가서 매고 와, 좋디야. 그 그렇하시요. 책보를 옆에 끼고 당나구를 끌구 나가더란 얘기에. 그래서 그 남자 인저 종들 보고서 한 서넛을 보고서 노자를 후히 쥐 가지구서 “너들 우리 당나구 오늘 놀며 갱갱이에 갖다 뵈을거여. 그러니께 너들 오늘 갖다 당일 못 와. 70리니께. 가 자구 그렇하구 내일 와. 그래서 우리 놀명이 갱갱이들 가서 당나구가 있는 거나 보구 오너라.” 그래 뵈단 말여. 이 사람들은 정일 되지게 간 게 70리 가다보니 해가 너울너울 넘어간단 말여. 넘어가더란 얘기에.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가 가만히 숨어서 보니께 당나구를 거기다 갖다 뵈더란 얘기에. 근데 해가 너울너울 넘어가는데 책을 옆에 쥐고 척척척 오더니머는 “이놈의 당나구야, 지금가 저녁 먹게 저물졌다.” 고 끌고 가더라는 얘기에.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구서 거기서 들어가서 자구서 그 이튿날 아침 먹고는 정일 왔지. 이거는 집이 와서 저녁을 먹고 그 이튿날 그 사람들 정일 들어 오니께 그 양반이 묻는 얘기가 “당나구 있더냐?” 니께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해가 너울너울 넘어가는데 집이 저녁 먹기 저물졌다고 끄고 나섭디다.” 그러니께 “원제썸 들어왔습니까?” “우리 저녁상 불드니께 들어왔더라.” 그 왜 그런고 하니 축지법을 한다는 기여, 축지법. 땅을 주름을 잡고 땡겨. 축지법을 해여.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자기네 집에다 두구서는 앞머리, 예전에는 처니 몸에서, 처니는 말이지 행세를 못하거든. 벙실을 안 췌어. 쌍놈은. 그러니께 그럴 망정 자기네 집에다 뒤서는 안되겠어. 그래서 그 굴 옆땡이에 밭 한 천 평짜리 하고 논 한 천 평을 내주면서 밭 한 천 평짜리 한쪽에다 집을 한 채 딱 지어서 깨끗하게 지어 주구서 “너 논 가서 천 평 지어 먹구 너 어머니 종문서 짝 내줄께 가지구 나가서 너의 너머니하구 살아라.” 그러구서는 뵈는데 인저 서구칭이라는 서구칭이란 분이 저의 어머니 보구서 나와 따로 나와서 살기는 사는데 저의 아버지 내력을 묻는게라. 이게 (조사자: 예.) “그걸 안일러 주면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자결합시다. 살아서 뭐하느냐” 구. 그러니 어떻게 안 일러 줘. 그래 사실이 사실 얘기를 자기가 쭉 했다는 기여. 그러니께 거기다 가서 그럭저럭 하다보니께 한 근 20이 가차와지고 한 열 칠팔 세가 뵈던 모양인데. 참외를 놓구서 한 십년을 작정하구서 저의 어머니 보구서 십년을 참외장사를 해서 저의 아버지를 찾으면 좋지마는 못 찾으면 어머니하구 나 이 자리서 죽읍시다. 그래 참외장사를 하는데 참외장사를 하는데 참외장사를 하면서 참외를 해서 따서 파는게 아니고 따서 무조건 그 큰 질 갖에니께 등짐장사가 만날 왔다갔다 하니께 가는 손님 오는 손님 올라 와서 쉬라고 하나씩 따주는 기여. 십 년을 계속 그래 저녁 먹고서는 거기서 회덕이 70리여. 회덕이 회덕 송씨가 양반이라는 거 아마 남한 일대가 다 알을기여. 회덕 송씨가 양반이여. 저녁 먹은 후 마실을 가 송씨 양반네 집이. 그러머는 이 서구칭이라는 분은 처니네 몸에서 쌍놈인디 회덕 송씨는 양반인디 저녁 먹고 마실을 가면 회덕 송씨가 와서 마당까지 마중을 와. 마중을 나오거든? 그러면 저녁 먹고 가서 놀다가 와 집이 와 자구. 또 식전에 나가 놀다가 집이 와서 아침 먹구. 그래서 원두막에 가

있는 거여. 인더 이렇기 세월을 지나는 기여. 그런데 하루는 회덕 송씨 아들이 “아버지 서구청은 처니네 몸에서 난 쌍사람이요, 우리는 양반인디 쌍사람이 오ندی 왜 아버지 마당끝까지 벼선밭로 마중을 나가시오.” 그러더란 얘기여. “사람은 호랭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격이 무서운 게다. 그 분이 처니네 몸에서 나왔지만 인격이 나보다 높으니께 인격이 눌리니께 할 수 없다.” 는 얘기여. 인격을 내가 당할 수 없으니께 진다는 얘기여. 그러머는 “오늘 저녁일랑” 아버지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께 “오늘 저녁일랑 그럼 니가 손님을 좀 대접해라.” “그렇하시오.” 저녁 먹고서 서구청이라는 분이 마실을 가느라구(청중들의 개입으로 얘기가 좀 중단됨.) 서씨, 서씨라는 성이 왜 서씨인고 하니 그 등짐장사가 서씨여. 그래서 서씨라고 그랬다는 기여. 잉. (조사자: 서고청이요?) 잉 서구청이, 그렇잖아. 그 등짐장사가 서씨니께 인저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니께 그 양반이 집에서 “너는 등짐장사가 서 알고 보니께 나중에 서가고 그래서 서가고 굴속에 났다고 해서 서구청이라고 양반의 집에서 그렇기 했다는 기여. (조사자: 서고청이요?) 그래, 그라. 그래서 서구청이라는 기여. 그래서 서 서방네라는 서씨라는 기여. 인저 그 어제 내가 적삼 소매 이렇게 맞히고 말았었지? 적삼소매 맞히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찾았거든 인저. 그래서 찾아서 거기서 살림을 하고 사, 사는 도중에 살았는데 결국은 나이를 먹다 먹고 그렇하고 나니께 계속 살아서 베실을 할라 베실을 할 수가 없어. 처니네 몸에서 나왔으니께. 옛날에는 쌍놈들은 베실을 안 헐어. 그거는 다 아는 게니께. 거기서는 쌍놈이라는 게 표가 나니께 베실을 할 수 있어야지. 에이, 거기를 떠났다고 떠났다는 기여, 자 저 경상도 달성으로, 달성으로 떠나서 그 달성 가서 뿌리를 잡구서 살으면서 베실을 (조사자: 달성서씨가요?) 잉, 그래서 베실을 해서 달성 서씨가 지금 양반이라는기여. 그래서 인저 저 서구청이라는 분이 회덕 송우암하고 친구간이여. (조사자: 송우암이요?) 송우암 송우암도 그 역사에 나오는 분여. 친구간인디 거기 마실땡기고 했었으니께. 친구간인디 서구청이 인저 살다가서 나이가 많으니께 죽었어. 죽어, 죽고 나니께 죽으면 생애 앞에 가는 명전⁹⁾을 써야 할텐데 명전을 명전을 쓸, 쓸 수가 없어, 잉? 이전에 우리네 베실을 못한 사람은 명전을 쓸 때 뭐라고 하느냐, 학생부군이라고 쓰거든? (조사자: 학생?) 학생부군이라고 쓰는디 그 이는 베실은 못했지만서도 안한 것하고 못한 것하고는… 이렇게 인물도 좋고 훌륭한 분인디 서 서구 학생부군이라 쓸 수도 없구 베실한 거 없으니께 무슨 베실을 달아서 쓸 수도 없구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여. 이게 그럴 거 아녀? 그러니께 죽기는 죽어도 생애는 나가야 할텐디 명정을 써야 되는데 명전을 쓸 도리가 없어. 그래서 송우암 송우암이 서구청하고 친구간이니께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께 그 아들이 있다가서 송우암한테로 부고를 해서 송우암이 거기를 왔어. 와서 보니께 명전을 쓸 도리가 없어, 어떻게. 자, 송우암이 생각을 해도 쓸 거시기가 없어, 그라 송우암이 생각하더니마는 ‘천인막덕지구’로 써라. (조사자: 천인막-?) 막덕지구. 근데 이게 한문으로 인제 풀이를 하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건 다 한문을 모르니께 몰러. 그롱게 썼다는 얘기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서 그 달성 서씨가 거기 가서 그래서 백리를 잡아서 양 지금와서 양반노릇을 한다는 얘기여. 그라 달성 서씨가 그라. 달성서씨도 뿌리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몰르는 사람은 몰러.

【신정동 설화 5】

온양시 신정동 천도 노인회관 1993.1.18., 박미애, 방지선, 이상은 조사

서병한 (남,77)

이천 서씨 유래

이제 말하자면 에 정년퇴직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하구서 경기도 이천에 와서 이천 가면 그 OB 맥주 공장들 알죠? 그 뒷산 그 뒷산이 바로 그 할아버지 이 저 묘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이제 그 터를 닦고서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많이 모아 들어서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하구서 있어서 80 장년에 혼차야. 흠애비가 되서 이 혼차 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인저 동상이 한 분인데 동상의 아들 하나가 있어. 동생이 아들 하나가 있는 거늘 양자 하라 그랬거든? 양자를 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너도 아들 하난데 내가 너 너 아들 내가 양자를 하겠냐? 혼자 있겠다.” 혼차 계시면서 이제 정말 선생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때는 제자들을 뭐 다 2~30·40대 된 사람도 있거든 말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제 장 인제 마누라를 얻으라구 그랬거든. 절대 부인했어. 안 얻는다고. 그리고 있었는데 대충대충 얘기를 하자 하루는 어디를 갔다 오니까 어떤 부인이, 40대 부인이 그 집을 들어와 있는데 그 답에 제자들이 그 때 자꾸 권면했거든. 권면을 하니까 그 때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 그 부인이 남양 홍씨야. 남양 홍씨 부인한테 장가를 들고 그 역사적으로 테레비 같은 데도 많이 예를 들면 나오죠, 그 문제가. 그래서 그래가지구선 그 답엔 그 부인을 얻어가지구 살면서 하루는 이제 그 때는 나무 안 때면 안 될 때니까 나가서 산에 가서 갈퀴나무를 했어. 갈퀴나무를 하고 있는데 갈퀴나무를 끊어서 잔뜩 이렇게 모아 놓고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총에 맞아 가지구서 다리를 절면서 내려와 가지구선 그 나무엔 나무더미에 이렇게 벌러, 드러 이렇게 했단 말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같으면 얼짜 좋다구 사슴 잡아다 먹든지 할 거 아냐? 그러나 이 양반이 봐서 얼른 생각할 적에 포수한테 총에 맞아서 내려오는 사슴인가 이걸 살려 줘야 겠다고 하고 갈퀴 나무 속에다 파묻어 줬어. 파묻구서 인제 한참 있으라니까 포수들 둘이 내리 오면서 “일로 사슴 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쪽은 또 정말 사람의 말이라면 서로 신임하고 잘 들을 시기고 또 점잖은 분이시고 하니까니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봤다.”고 그러니까 포수들은 포수대로 지나갔어. 지나가고 그 댐에 약을 발라주고 쳐 매주고 해서 메칠 동안 그걸 치료를 해서 보냈지. 치료를 해서 보내서 이제 그 사슴이 살아가서 살아간 답에 그 자리에 정말 그 말하자면 그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테레비 나온 거 보때는 그 양반은 ‘싱으로서 자손을 얻을까’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인저 자손을 낳구 이렇게 살 순간에 돌아가실 때 거반 났는데 꿈에 현몽하기를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해 줬으니 그 사슴을 말이야 그해 줬으니 그 자리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자리 갖다가 물어 달라.” 고 자손들께 다 예언을 하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생각하다 돌아가시기 가서는 자손들한테 자손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답에 에 돌아가신 답에 그 자리에 갖다 묻, 묻었지요. 그 자리에 묻었는데 그 산은 비록 적지만 거기를 올라가면 몇 백 리 밖에까지 전부 들여다 보입니다. 참, 묘자리가 정말 아무리 추운 날 가도 추운 줄 모르고 그런 자리지요.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손 그 80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손 손주도 보고 다 그렇하시구 돌아가셔서 그것이 우리 서씨네 원 시줍니다. 예. (조사자: 이천 서씨?) 예, 이천 서씨. 경기도 이천. 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은 ... 이제 말하자면 고려에 높은 벼슬을 했고, 또 학생들은 뭐 역사에 잘 배웠지만 서희 장군 있잖아? 서희 선생. 서희 장군은 고려의 명장으로서 묘란군 100만 대군을 (웃음) 혼차 물리치지 않았어요? (조사자: 네.) 그렇게 우리 서씨네 원 시조가 그렇기 된 겁니다.

나. 구온양시 마을 2 (온천동)

1) 조사 일정

1993. 1. 18., 전연속 기록

18일 아침 일찍 조사자들은 온천동 노인회관을 향했다. 사전조사에서 구연가능자가 비교적 많았었으므로 조사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조사자들이 너무 일찍 도착한 관계로 1시간 가량 기다린 11시 쯤이나 되어서야 노인회관이 복적거렸다. 이야기관은 비교적 손쉽게 무르익었고 구연자와 청중이 대체적으로 협조적이었다. 저사자들은 여기서 신현성씨로부터 <효자바위>, <배방산과 방씨의 유래>, <윤보선 대통령 묘>, <신정호 마을의 옛이름>, <토정 이지함이 죽게된 이유> 등과, 이법성씨로부터는 <이지함과 소금장수>, <애기 바위의 유래>, <맹정승과 두 마리 소>, <참외값 대신 호랑이를 잡아 지불한 총각 장사> 등의 설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다되어 조사자들은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2) 마을 개관

【구온양시 마을 2】

336-010 충청남도 온양시 온천동

1993. 1. 18., 한혜인 조사

온양의 온천동은 온양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온천동은 행정구역상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온천 1동은 새로 지은 호텔이나 유락시설 보다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여관들이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보다는 온양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온천 2동도 새로운 동네라기 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마을이다.

마을 규모에 비해 경로당 등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았다. 노인정이 있었으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것이었고 손질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3) 구연자

【온천동 구연자 1】

온양시 온천동, 신현성(申鉉成), 남, 78

1993. 1. 18., 권민정 조사

신식 양복에 빨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귀가 먹어서 의사소통을 글씨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사자들이 묻지 않아도 이야기가 술술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젊어서는 전매청에서 근무하다 일본사람에 비해 아주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만두었으며 매일 감정이 깊어져 몽고로 가서 독립군을 만나려 했으나 실패하고 4년 동안을 떠돌다가,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28세에 장사하던 것 다 버리고 빈 몸으로 돌

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 예전 지방자치 때 온양의원으로 있었다고 한다.

孝와 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유교 사상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말하고 침착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청중들은 조사자들이 들어가자 하던 화투도 그만두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가끔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했다.

<효자바위>, <배방산과 방씨의 유래>, <윤보선 대통령 묘>, <신정호 마을의 옛이름>, <토정 이지함이 죽게된 이유>를 구연하였다.

【온천동 구연자 2】

온양시 온천동, 이법성(李法成), 남, 81세

1993 .1. 18., 권민정 조사

온천동에서 3대째 살고 있다는 이법성 씨는 앞머리가 좀 벗겨진 대머리이며,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구연할 때는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아 성급한 성격인 듯했다. 청중들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으며, 가끔 맞장구도 쳐주었다.

어려서 어른들에게 들었다는 <이지함과 소금장수>, <애기 바위의 유래>, <맹정승과 두마리 소>, <참외값 대신 호랑이를 잡아 지불한 총각 장사>를 구연하였다.

4) 설화자료

【온천동 설화 1】

온양시 온천동 노인회관, 1993. 1. 18., 한혜인, 전연숙, 권민정 조사

신현성(남, 78)

효자바위, 배방산과 방씨의 유래, 윤보선 대통령 묘, 신정호 마을의 옛이름, 토정 이지함이 죽게 된 이유

온천 1 앞, 뒤

여기는 임진왜란 때에 참 공을 세우신 이순신 장군 댁이 여기 얼마 안 되잖어. 생가가. 그 래 아산이라고 하는데는 그러키 유명한 곳이여. 그러구. 또 그 양반 묘소가 요 음봉면 삼거리 에 있지. 그러구 또 이 우리 구한국 말년에 이 개화파로 그때 당시에는 친일파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실지는 친일파가 아녀. 김옥균 선생. 그 묘소가 여기 있는 아산리에 있어. 인저 그건 그렇고. 이 지방의 전설을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요 유구가는 길있지. 그러구 구 온양 알아? 구 온양. 여기는 온양 온천이고, 옛날에 온양이라는 데가 있어. 옛날 온양. 여기서 약 한 이키로백이 안 떨어져 있지. 그런데 그 중간에 효자바위가 있어.(조사자: 아, 효자바위요.) 그래, 거기에 전설보다도 그 바위에 비문이 써 있어. 그런데 인저 듣는 얘기로는 그 년도가 단기 몇 년이라던지, 서기 몇 년이라던지 하며는 언제 적인지 알지마는 그 단기니 서기니 그러키 안 적구 그전이는 그냥 갑자을축 해가지구 그것뿐인 안 했어. 그런데 전설로 들려오는 말로는 갑자시대에 정신이란 분(조사자: 정신이요?)성은 정씨고, 이름은 신이

여. 믿을 신(信)자 신. 그분이 참 효심이 뛰어난 분인데 어터키 어려운지 한 날은 식전에 일어나서 배곶에 나가서. 개가. 그때는 어렵게 살았지. 지금처럼 우리 지금은 우리 참 부자가 됐어. 근데 이 보리쌀을 먹구서 토해냈어. 그것이 그냥 생보리쌀로 있어. 인저 하도 궁하니 까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봉양할 거리가 없어. 그래 그것을 깨갓이 띄어가지구 닭고 닭어서 밥을 해서 우선 자기가 먼저 보고, 그라고 어머니를 봉양했다구 그래요. 그럭허구 그날 일을 나갔어. 일을 나갔는데 하늘을 찻 뵈니까 개성병력이 막 하구 번개가 왔다갔다 천둥이 왔다갔다. 그래 여기 사람들이 “이 속이는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께 우리가 다 죽을 순 없으니께 그 죄지은 사람은 나가라.” 그래 이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 그 옆당이 바위 있는데 가 섰어요. 그래 이저 하늘에서 벼락이 짝 때러가지구 거기에서 은덕을 사했다. 그래 거기에 비문이 뭐라고 써있는고 하니 천감기성(天感其誠)이라. 천감기성. 하늘 천(天)자. 감동할 감(感)자. 이, (청중: 그 기(其)자) 이저, 말씀 언(言)변에 이 글자 아녀.(조사자: 예.) 이것은 그거지. 성자여. 하늘이 정성을 감동해서.(조사자: 예.) 하늘이 감동했다 그거여. 정성을. 그러구 벽암사은(霹巖謝恩)이라. 벽암사은. 그건 무슨 말이나. 벽이라구 하는 것은 벼락 벽(霹)자여. 한자루 벼락 벽자. 암은 바위 암(巖)자여. 바위를 벼락으로 쳐서 은을 사했다. 그거여. 그래 거기에 그 비문이 써 있어. 아주. 그런데 이것은 전설도 전설이지만 거짓말이 아녀. 그래 그거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내가 아는 게 많지만 모두 잊어버리고 여기 여. 여기 방씨가 있는데, 여기 모방(方)자 방씨의 그 유래에 대해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아산군 여길 아는지는 몰러두 여기 배방면이라는 데가 있지. 천안에서 여기 오면. 천안서 바루 옆당이 배방면이여. 그 배방면이 배자가 이러키 써서 이게 해칠 배(排)자라는 자여. 해칠 배자라는 자여. 이게. 이위는 초두하구서 모방했지. 그래 배방(排芳)면여. 이 배방면에 배방산이라는 산이 있어. 배방산. 이산은 저기, 어디 살어?(조사자: 저요? 천안 살아요.)천안 살어. 여기서 일명 그 산을 가지구 성제산 성제산 해여. 인저 그건 그렇구. 이 배방산에 대한 유래를 내가 얘기할라구 하는 거여. 유래를. 이 옛날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언젠고 하니 신라, 백제, 고구려 이게 삼국이지. 아시니께 덜 얘기지. 인제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가 덜 망하고 신라가 이제 통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신라가 통일을 못 했어. 사실은. 왜 그런고 하니 이 백제가 망하면서. 여가 백제여. 백제가 망하면서 인제 저 후백제라고 해가지고 견훤이라는 사람이 신라를 치구 들어가. 신라를. 그때 아자왕이라구 있었는데 신라를 치구 들어가니께 전부가 다 뒤로 빠졌단 말여. 그러니 임금두 죽구 신하덜이, 웬만한 사람 다 죽었다 그거여. 그때 이 지금 얘기한 방씨. 방씨도 거기에 잘 벼슬해자셨는데 아, 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거여. 그런데 마침 열살 먹은 사람도 하나 살았어. 방씨 중에서. 그래 온양 방씨. 여기 온양 방씨라구 그러지. 온양 방씨의 그 원 시원이 그분이여. 그래 그분 이름이 뭐고 하니. 구름 운(雲)자. 방운(方雲)이여. 여기 방씨가 있으믄 증거가 되었는데. 방운이라는 분인데. 그 분이 열살 먹었는데 그 분이 하나 살았어. 그래 인저 이 분이 커가지구 결국은. 그후 건국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왕건 태조지. 왕건이가 인저 그때 이 뭐여. 일어나가지구설랑. 견훤이를 치러 갈 참여. 이 견훤이란 사람이 신라를 절단냈으니께. 그래 치러가는데 이 방씨가 이사람이 협조를 해 가지구 결국은 그 때 가서 통일을 한겨 전부. 통일을. 그러니께 그 때 이 방씨가 상당히 전공을 세운 은공으로해서 온수군이란, 온수군. 이, 이건 저 뵈이 이건 저 옛날이 벼슬 직함이여. 온수군. 그래 온수군을 봉해가지구 온양으로

보냈대. 그래 온수 여기 온수라는데. 그래 그분이 여기 와서 그 배방산 밑이 와서 집을 짓고 고려 임금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니 고마우니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절을 하여. 그래서 그 배방산. 절 배(拜)자여. 처음엔 절 배자. 절 배자. 모 방자. 그 성이 모방. 방아녀. 그래 배방산(拜方山)이라고 했어. 그 때는 절 배자 모 방자 배방산이라 했던 말여. 그 산을. 그러하다 그후에 인저 고려가 망하고 아태조 이성계씨가 등극하지 않았어. 그래 인저 이성계씨께서 등극을 하면서 이 방이라는 사람이 자손이 인저 고려가 오백 년이니까 많이 내려왔지. 아 이건 확실한 건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거 별로 틀리지 않을 겨. 그 방운이라는 분이 십육대 조가. 그 손이라는 분이 16대손. 그 사람이 이름은 방일정이라고 할 겨. 이름은. 이 방일정이라는 사람을 자꾸 이태조가 불렀어. 벼슬을 줄라구. 오라구 자꾸 불렀어. 그래 인저 자기는 고려의 충신의 손이니까 청신은 불사이군이다. 청신은 불사이군이라우해서 응하지 않았단 말여. 그래 몇 번이구 자꾸 불러두 안가. 그러니까 이태조께서 꽤 씹하잖어. 임금이 불르니까. 임금이 벼슬을 줄러구 불러두안오니깐 청신은 불사이군(淸臣은 不事二君)¹⁰⁾이라고 안 온다니께. 꽤 씹하니깐 그 산소가 그 그집안의 그 방운이라는 그분의 손들이 죽 거기 묻혔지. 그래 응하지 않으니까 쫓아가서 전부 묘이까지 파헤쳐버려. 읊어버렸어. 그래서 이 해칠 배자가 생긴 겨. 해칠 배자가 잉. 그러구서 그 때는 잉 해칠 배자 써놓고 모 방자 써놓고 배방(排方)이라고 했다구려. 근데 그 후 얼마 있다가 방씨의 또 손이 나라에 상소를 했던 말여. 애초 이랬었는디 이러키 좀 고쳐주십시오. “아, 이 꽤 씹한 놈 봐라.” 거기다 모방 자 위에다 풀초를 이러키 해 버렸단 말여, 거기다. 그래서 배방산(排芳山)이 됐어. (조사자: 예.)그런디 여기 방씨덜이 있으면 아주 그냥 증명이 되겠는디, 별로 안 틀릴 겨 이게. 전설도 되지만서두, 방씨의 족보에서 나올 겨.

음봉에 윤보선, 윤보선 대통령 말이지. (조사자: 예. 그 분 묘가 어디 근처에 있다던데…….) 그래. 그 묘기 어디, 거 어디지? (청중: 동천리, 음봉면 동천리) 동천리, 동천리. 이 낭반이 묘이를 쓴 것은 그 선대 산소가 있으니까 썼고, 이 윗 선대 산소가 왕기가 있어 썼다는 겨. 왕기가 있어. 그래 대통령을 했다는 겨. 그래 이 분이 이 윗대 산소가 있어 거기에 쓴 거고. 이 분 윗대 산소가 왕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썼다는 겨. 그래 이 윤보선 대통령이 그래서 나왔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여기 가면은 신정호있지. 신정호(조사자: 예.) 그 신정호가 어떻게 생겼느냐. 고 밑에 방축리란 동리가 있어. 막을 방(防)자, 쌓을 축(築)자. 이러키 해서 이럭허구. 쌓을 축자 방축리가 있는데 그러믄 이건 막았다는 얘기여. 이게. 쌓을 방자. 저 뵈여 이게. 쌓을 축자니께. 그런데 그게 옛날에 신정호가 생겨서 막은 게 아니거든. 그래 이게 묘하게 막을 줄을 알고 방축리라고 맨들었다 그런 얘기여.

토정 선생은, 이 낭반은 한산 이쨌네. 이 낭반이 여기, 옛날에는 아산군이라는 데가 지금은 온양시가 따루 됐지만 그전이는 온양군, 신창군, 그라구 인저 아산군. 이 세군이 합쳐서 아산군이 됐거든. 그런데 옛날이 아산군이 따루 떨어졌을 직이 이 낭반이 거기 원으로 와서 계셨지. 그런데,이 낭반 참 유명한 양반여. 이 낭반이. 그래 이저 이 왜 유명하냐. 이런 전설이 있어. 그래 이 낭반이 잘 알기 때미, 옛날에는. 지끔으루 따지면 비서지만, 지끔은 비서.

토정 선생은, 이 냥반은 한산 이썬데. 이 냥반이 여기, 옛날에는 아산군이라는 데가 지금은 온양시가 따루 뒀지만 그전이는 온양군, 신창군, 그라구 인저 아산군, 이 세 군이 합쳐서 아산군이 뒀거든. 그런디 옛날이 아산군이 따루 떨어졌을 직이 이 냥반이 거기 원으로 와서 계셨지. 그런디, 이 냥반 참 유명한 양반여. 이 냥반이. 그래 이저 이 왜 유명하냐, 이런 전설이 있어. 그래 이 냥반이 잘 알기 때미. 옛날에는. 지끔으루 따지면 비서지만. 지끔은 비서가든. 그러니께 이 냥반이 항상 아침이면 지네, 지네, 생지네즙을 자셨어. 그래 인저 그거를 자실 때에는 반드시 생물. 밤. 밤을 꼭 자셔야 괜찮어. 그래 밤을 안 자시면 죽어. 그래 이,이 사람이 미류나무루다가 밤처럼 깎아서 있다가 지네즙을 드리구서 잡구서 인저, “밤, 밤…….”하다 작고했다지, 이 냥반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산이란 골을 쳐주덜 안 했다는겨. 윗 상전을 잡아먹어서.(조사자: 그래, 나중에 가봤더니 어떻게 뒀어요?) (청중: 가봤더니 금덩인 하나도 없고 맨 돌막만 있더라.) (조사자: 소금 애긴 난 잘 몰르겼어.)

【온천동 설화 2】

온양시 온천동 노인회관, 1993. 1. 18., 한혜인, 전연숙, 권민정 조사

이법성(남, 81)

이지함과 소금장수, 애기바위의 유래, 맹정승과 두마리 소, 참외값 대신 호랑이를 잡아 지불한 총각장사

온천 1 앞, 뒤

토정 선생이 가만히 보니께 서해바다서 바닷물이 막 밀려올 시간이 뒀는디 아이 다 죽게 뒀거든. 고을 사람덜이 다 죽게 생겨서 이 얼른 시방 아무디, 아무디로. 그전인. 시방은 시간이니 뭐 어찌니 그러지만 그전인 자시니, 오시니 그라잖어. 그래 그 시간을 대주면서 “그안에 그 아산 뒷산으루 피난가야지 살지 그러지 않으면 못산다.” 그래 쪼끔 있으니까 참 막 전 고을 사람덜이 전부 피난해 올라갔는디 쪼끔 있으니까 막 물이 막 넘어 들어오더라. 시방으로 얘기하면 해일이라구 그러지. 막 넘어 들어오더라. 아 그란디 인저, 자기는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는 지를 몰렸어. 그래 소금장사가 소금짐을 지고서 착 올라오더니. 그전인 소금지계가 이상했었어. 이렇기 다리가 기다랑고. 작대기루 쇠꼬챙일 맨들어서. 작대길 착 집으면서 “요기백이 안 올테지.” 그래 소금장사가 그러더라. 그래 이 냥반 그분이 그러니께 “아, 저 양반이 나보다 더 나시구나.” 아니 참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작대기 뽑어논 데 거기까지 물이 찰럼찰럼하더라. 그래 그 양반이, 토정 선생이 “아주 참 용하다.”고 그랬다지. (청중: 그래 토정선생이 소금장사만 못했대는 얘기지.)

시방은 엽티읍이 뒀지만 그전인 엽티면이라구 그랬거덩. 고 위에 저 아산 갈라면 거 서원골이라구 있었어, 서원골. 거기가 예전이 장자가 살고 큰 동네가 있었구 그랬다. 그런디 욕심 많은, 욕심 많은 분이 거기서 살면서 세상에 동냥을 달래도 동냥도 안 주구. 그런디 하루는 중이 떡 와서 깻먹을 치면서 시주를 줌 하라구 그라더라. 그러니께는 그 자부가, 자부. 자부가 인저, 자기 시아버지가 하두 이러키 인저 선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시아버지 몰래 참 시주를 해서 쌀 댓박이나 행랑에다 담아서 줬대여. 그랬더니 아 고때 마침 시아버지가 와서, 아 동냥줬다구 막 야단을 하면서 하인을 시켜서 그 “저, 동냥주머니 가져오라.”구. 그

래서 인저 뺏어다가 쌀을 쏟아 놓구선 거기다가 쇠똥을 하나 가뜩 담아줬어. “이거나 갖다 먹으라.”구. 그러니 그 얼마나 그게 모독하고 악독하 그제. 그제 인저 그라니께 중이 “할 수 없다.”구. 그러면서 그 자부되는 분더러 “아무 때 아무 시에 이 뒷산으로 올러오데, 그 때 뒤서 별 소리가 다해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러오너라. 그러면 자기는 인제 존디로 갈 거다.” 이라구서 그랬는디, 아 그때 시가 되니까는 그거를 알고서 이제 산으로 올러가기 시작하니께 별안간에 천둥번개가 막 하거든.그러면서 그 뒤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그라니께 암만 강한 사람이라도 그거 안 돌아 볼 수가 있자. 그때 어린애를 업구서 그 뒷산을 올러가다 이러키 돌아다 봤어. 그 돌아다 본 죄루서 애기 바위가 뛴어. 애기 업구. 거기 저 옆티 저쪽 아산 가는데 거 거 가보면 저 어린애. 어린애. 그런덴 한번 가봐야 하는데. 어린애 이리 뒤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손 바위가 있어.

그 맹정승이 늘 한양에 땡기실 때 소를 타구 땡기셨어. 소. 그라구 와서는 인제, 그 냥반이 참 근면하고 부지런하셔서, 와서는 농사짓느라구 소를 꼭 쌍둥이를 매가지구선 쟁기질을 해도 쌍둥이를 매가지구선 쟁기질을 해도 쌍둥이를 매가지구 쟁기질을 하. 그래서 인제, 한 과객이 그 ,그 양반이 정승인 줄을 모르고. 농사짓구 그라니께. “영감님, 영감님.”하고 부르 거덩. 그제 “왜 그러느냐?”니께 “말 좀 물어봅시다.”그제. “그 소 두마리 중에 어떤 소가 기운이 더 낫니까?” 그라니께 말을 안하고 있더니 소를 세워 놓고, 일을 하다 말고 그 과객에게 와서 “귀 좀 빌려다구.” 그제. “왜 그러냐.” 그래서 인저 “당신이 그 소 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가 낫다. 누가 나쁘다 그라면 다 기분 나쁠 거다.” 그러면서 “검정 소가 더 낫긴 합니다.”이러키 얘길 하더라.

어려서 할머니들 한티 얘기 들은 거여. 이 지방 순천향 핵교가 있잖어. 그 것이 예전에 그 예산 가구 그럴라면 그 좌불이서 구운양으로 해서 전주 고개로 해서 이러키 넘어 땡기구. 그것이 그 예전 큰 길이었어. 그제 그전 뒷 고개가 굉장히 험했었어. 도둑놈도 많고 그랬는 데.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야. 그 고개 풀창이다가 참외, 수박을 많이 심어 놓고 그걸 인제 지키느라구 원두막을 짓구 그랬는디 달이 밝더라. 밤이 자다가 보니께, 이 원두막이 자꾸 흔들흔들 하거든. 그제 “이 웬일인가!” 하고 말야. 이러키 내다보니께 호랭이가 와서, 배가 고프니께 사람내 말구선 잡아먹을라구, 원두막을 쓰러뜨릴라구 막 그 기둥있는 디를 떠다미는 거. 그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서 죽었구나.”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 아래 골목이서 어떤 청년인진 몰러두 노래를 해가면서 올러오더라. 그러니께 인저 호랭이가 그 소리를 듣구서 쫓아갔어. 그 노래 나오는 데로. 그제 그 호랭이가 참말로 가서 읊어졌음 좋겠는디 또 올지 모르구. 그렇다구 해서 나와서 동네 있는 데로 들어오긴 머니께 들어 올 수도 없구. 그제 아 그제 두러늘두 못하구 앉었는데 얼마 있더니 한심을 쉬어가면서 “휴.” 하고 내쉬면서 “어이, 참외 따다 놓은 거 있으면 좀 달라.”구. 그제 사람 소리가 나잖아. 그제 아 호랭이한테 놀래서 그랬는디 나갈 수 있어? 그제 “밑이 따다 놓은 거 다 가지구 가라”구 말여. 그제 인제 열말 먹는지도 모르겄더라. 한참을 먹더니, “참외값은 널 아침이 저 아래 골목으로 오면 그 참외값을 갔다 뵈시니 참외값을 그걸루 거시기 하라.”구서는 그냥 가버리더라. 그제 얼마 있으니께 참 첫 닭이 울고, 둘째 닭이 울고, 날이 흰하게 밝았어. 그제 인제 밤새도록 혼났으니께, 집을 가야 할텐데 참외값을 거기다 뵈다구래서 의심스럽거

덩. 그래 슬슬 걸어내려 가보니까 큰 호랭이가 쪽 뺨으러 졌는데 이 귀밑으로 호랭이 귀 밑 으루 재보니께 발가웃이 되더라. 얼마나 커. 한 3미터는 되잖어. 그래 그놈 잡아 놓고선 그 걸로 가져간 거지. 그래 그 발표시를 보니께는 총각은 총각이더라. 아 이놈을 양귀를 쥐구 선 냅다 틀러 매쳐서 죽였더라. 그래 그런 장사가 있었다는 거.

【운천동 설화 3】

운양 운천의 유래

옛날 아득한 옛날에 운양 땅에 한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서 빨리 짝을 지어 손자나 보았으면 하는 것이 더없는 소망이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이 자라서 혼처를 구하려니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마저 절름발이여서 딸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러지 않아도 절름발이 다리를 한스럽게 여겨 왔는데 그것이 허물이 되어 아들의 결혼까지 할 수 없으니 더욱 원망스러웠다. 중매쟁이는 노파가 너무도 간청을 하는 바람에 다시 중매를 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아랫마을에 사는 김침지네 집으로 가는 듯이 달려갔다. 그에게는 과년한 언청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침지는 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침지의 이야기가 절름발이인 시어머니한테는 딸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중매쟁이는 할 수 없이 물러나와 황영감네 집으로 갔다. 이제 과년한 딸이 황영감네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황영감 딸은 한 쪽 팔이 곰배팔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황영감은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답답하리만치 오래도록 담배만 뿜뿜 빨더니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딸이 한 팔을 못 쓰는데 시어머니마저 한쪽 발을 못 쓰면 남들이 모두 반편들만 모인 집안이라고 놀릴 텐데 어찌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중매쟁이는 할 수 없이 이집에서도 돌아서고 말았다. 노파는 중매쟁이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얼마나 분했는지 모른다. 더구나 자기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서글프기까지 했다. 노파는 생각다 못해 한쪽다리를 절며 찾아갔다. 부처님께 삼대독자인 아들을 장가보내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아들이 장가를 들 수 있게 해 달라고 불공을 드렸다. 그런 어느 날 관음보살이 나타나더니 순서가 틀렸다면 아들이 장가는 것보다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부터 빌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관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불공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공중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듣거라, 네 정성이 지극하여 네 소원을 들어 주겠으니 내일 낮에 마을 앞에 있는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 올테니 잘 살펴보도록 하라.◆◆◆◆◆◆ 노파는 이런 소리를 듣고 캄캄한 산길을 더듬거리며 내려왔다. 그런데 그 학은 앉은 자리에 뱅뱅 돌면서 그 자리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도 그 학은 그 자리에서 같은 짓을 하더니 사흘이 되던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더니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렸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노파는 하도 신기하여 학이 서 있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기이하게도 눈에 있던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파는 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열흘간이나 있었다. 그랬더니 절름거리던 다리가神通하게 나왔다. 그래서 삼대독자에게는 부처님이 알아본 사람이

라 하여 혼인 말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마구 몰려드는 바람에 온양온천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온천동 설화 4】

열녀비의 유래

충청도 온양 땅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딸이 나이가 차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부가 신행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과부가 된 신부는 죽어 버리려고 하다가 청주에 홀로 계신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아버지께 ◆◆◆◆◆나의 슬픔도 크나 자식을 잃은 시부모의 마음은 더 슬플 것입니다.◆◆◆◆◆하며 청주로 시집살이하러 새하얀 상복을 입고 길을 떠났다.

시부모님 공경을 물론이요, 완전한 주부가 되어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맞춰 정성껏 지냈다. 하루는 이부인이 시부모한테 간곡히 청하기를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시부모를 설득하여 양자를 들여 친자식 못지 않게 사랑하며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후에 세월이 흘러 집안 살림도 넉넉해지자 아들 내외를 불러 놓고 ◆◆◆◆◆내가 할 일은 다 한 모양이니 행복한 가정을 가꾸라.◆◆◆◆◆는 말만을 남기고 다음날 약을 먹고 죽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선비들이 이부인을 위해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온천동 설화 5】

남산의 유래

고려 태조가 유검필에게 명하여 탕정군에 성을 쌓았다. 이때 후백제의 장수 금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청주를 침공하였다. 하루는 검필이 남산에 올라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꿈에 한 거대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서원에 반드시 변란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검필이 놀라 깨어 청주로 달려가서 후백제의 군사와 더불어 격퇴하고 독기령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포로한 것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온천동 설화 6】

입안리, 명암리, 희안리의 유래

고려조 초기에 도선선사가 답산 초사리 후 옆 산에 올라보니 이 산자락에 왕이 나올 자리가 있으므로 산을 쫓아오다가 갯바위까지 와서 갯을 벗어 놓았다하여 갯바위라하며 울바위에 와서 산혈구를 잃고 울었다하여 울바위라 하고 희안리에 와서 산혈구를 잡고 무릎을 치며 희안하다하여 희안리라 하였다.

【온천동 설화 7】

서 용천이 솟았다. 그런게 가 봤대요, 그래 물이 솟았대요. 그래 그 뒤에 그물을 갖다가, 인제 그 세조대왕께서 먹어 보니까 그 맛이 오색진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다섯가지가 맛이라 그거예요, 그 물맛이, 그래서 아주 그것이 그전에 약수다 이래서 그 세조대왕께서 ‘어천이다’ 이래 명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지방 모두 그전 일제시대 때, 약 사십년 전에 내가 거기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어천이라고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도구로 네 방을 짜서, 이렇게 넣어서 네 방을 짜서, 그래 짚이도 얼마 안돼, 한 그저 이 바가지로 이렇게 푸게 돼 물을, 사람이 이래 바깥에서 푸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거기를 이래 들여다 보니까 천(泉)짜는 모르겠구 어(御)짜는 뚫에다 이렇게 새겨 있더라 이거여, 천짜는 모르겠어.(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9】

궁터전설

여기가 세종대왕 때부터, 세종대왕이 여기 다 계시고, 그 뒤에 여기서 궁터가 있어요, 궁터, 궁터, 그래서 여기서 그 궁터가 지방 어딘고 하니 제일호테루, 제일호테루, 그 뒤가 동문 서문 남문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점시 뜸을 들임] 영조대왕 이후까지 여기서 과거를 봤어요. 문관으로 이백명, 무관으로 백 오십명, 연년이 여기서 그 과거를 봐서, 그 궁터가 지방 제일호테루 뒤, 거기가 그 궁터요. 그런게 과거를 볼 적에는 그 왕께서 여기와서 쉬시고, 인제 그 뒤에 각 시관을 예서 엄숙하게 그 때 그 과거를 보는데 여간 엄숙하달 안했어.(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0】

효자바위 전설 ①

전설에는, 거기 효자바위라는 건 거기 적어다오는 건 그렇게 했더구만, 여기 내려 오는거로는 이 전설루는, 어느 여자가 그 효성이 아주 지극해야, 그런데 끼니가 간데 없어요. 그런데 한번은, 그런게 남의 밭, 남의 밭에 가서 품팔아서 먹구 사는 게라. 그런데 한번은 식전에 나가보니까 개란 놈이 그 보리를, 생보리쌀을 먹구서 갖다가 똥을 똥똥 냈대요. [청중: 게워 똥똥 냈대요. 게워 똥똥 냈대요] 아녀, 내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게요. 그래 그걸 갖다가 깨끗이 씻어서 갖다 밥을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줬단 이 말예요. 그리고서 밭품을 팔러 갔단말요. 그래서는 그거 효자바위가 아니라 효부바위 [조사자: 효부바위요] 효부바위, 효자바위가 아니라. 그래 인제 밭을 파고 하는데 느닷없이 구름이 끼고 우르렁거리고 하더니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니, 그 밭매는 여러 사람들이, “이게 암만해도 수상한데 여기서 자기가 무슨 죄 있는 사람있거든 나아가라” 그래서 인제 그 여자가 나갔어요. “내가 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벼락이 불끈 갖다. 그 바위 그 효자바위, 거기다 놓고서 그 바위를 탁 때렸어, 바위를 때리고 보니까, 거기서 금이, 금항아리, 금이 나왔어, 거기서, 그래서 그 뒤에 거게 효부바위라고 새겨졌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사를 때까지도 있었어요. 한 지방으로 한 육십년, 한 육십년 가령 있었는데, 그것이 대개 요렇게 조금 글씨가 있으나 알아보달 못했어요. 그 뒤에 누가 또 써 똥똥 냈다야, 내가 들은 것은 그게예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1】

효자바위 전설 ②

내가 들은 소리는, 효잔디 그 어머니가 장님이래요, 그 어머니가 장님, 칠십 넘은 장님인데 하루는, 아무것도 없는 참 어려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제..., [청중: 아니, 그 양반 거시킬 또 해요, 거기다] 그런데 날마다 구걸을 해다가 그 어머니를, 그 부모를 갖다가 공양을 하는데 하루는 날이 하두 몹시 비가 오고 해가주구 나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찍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인제 비가 꺾끔하니깐두루 인제 어디가서 동냥을 해다가 장님 그 어머니를 공양을 할라고 나가니깐두루, 느닷없이 그냥 냅다 뇌성벼락을 하고 그냥 거식해가주군 냅다.... 그레가주구 인제 응, 어머니 공경을 하려고 나가는, 나가는데 보닌까두루, 이전에는 보리, 저 보리쌀만 저어 시굴서두 삶아 먹었거든, 그레 삶으려고 쓸머는 개란 놈이 그걸 먹는 수가 있거든, 그레 그걸 먹고 만일 토하게 되지, 그런데 그거 개가 뉘집에서 보리쌀을 잔뜩 먹고는 토한게 있더라 말이야, 그레니깐, “우리 어머니가 배 고프실 테니깐 우선 저거라도 끓여 드려야겠다” 고, 그걸 갖다가 바가지다 담아 가지고 가서는 물에다 씻고 씻고 해서는 그걸루다 밥을 지어 가지고서는 어머니, 참, 자기가 먼저 먹고 말이지,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그러구는 인제 어머니 갖다 드렸다. 그거지, 어머니는 시장하고 앞을 못보고 하니깐 해서 자기가 그랬단 말이야, 그걸 먹어, 자시는 걸 보면서, “내가 아무때라도 죄는 죄대로 받을텐데, 어머니를 저렇게 개가 토해 낸 음식을 갖다 먹었으니 어떡하나”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느닷없이 그저 후다닥하더니 하늘이 벼락을 치더라요. 그레 인제 이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방안으로 몰려갔는데, 그리곤 하늘이 벼락을 쳤는데, 정신을 채려보니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갖다가 짹 갈라 났더라는만, 그레, 그레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보니깐 금이 들었더라요. 그레 그 금을 갖다가 팔아 가지구 그 사람이 금을 팔아 그 부모님을 잘 대접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보고는 인제 거기다가 벼락바위라고 해서는 인제 비를 해 세웠는데, 인제 그 효자바위라고 썼대요. 비가 있어요. [청중 : 김신이야, 효자 이름이](구연자 : 이경호)

【온천동 설화 12】

신천 유래

여기서 거지반 한 십리 되는 데가 구운양이예요. 거기에 어떤 총각아이 효자가 있더라 그게여,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은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저수지 밑이, 검은들이라고 해, 거기 약수가 있다고 해서 한 십리 되는 데를 자기 어머니를 매일 업구서 그 약수터엘 땡기는 게여. 그런데 한번은 이래업구서 가다가 이 온천을 지났는데, 그러니께 이 온천을 지나서 가는디, 이 저 검은들이라고 흑색이라고 하는 디가, 그런데 학이, 핵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어서 물을 먹구 있다, 물을 먹구, 그런데 한번은 지나다 보니께 이 핵이 쪽지가 부러진 핵이여, 그런데 이 놈이 거기를 웅-하고 땡기더니 한번은 지나다 보니께, 아 이놈이 날라서 훌쩍 날라간다 이거여, 그러니께 그 효자, 참 저어머니를 이래 업

고 다니는 그 아이가,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그 물이 나온게여, 시방 온천, 칠천이라고는 하는, 저거시께, 저 온천물이 나온거여.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그 물을 먹여가지고서 그 병이 낫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텀 이 온천탕이 처음 발견된 거예요. 전해져 오는 말은 그젠데, 이게 햇수루는 언제 이 온천이, 언제부텀 됐다는 거시기가 없구 전설에 내려오는 말은 그런 말이 있이오.(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3】

희안리 갯바위, 울바위 전설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언제 낳는고하니 개성 도읍전에 고려, 그 도읍전에 낳어요. 그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중이 도선이. 그 분이, 도선이라는 그 중이, 여기 저 초사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초사리서 쭉욱 산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대지가졌다 이거예요. 울바위, 아니 저 갯바위라는 데를 왔어요. 그래 갯바위에 와서 갯을 벗어놓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울바위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맥이 온디 간디가 없단말이여, 맥이, 산맥이. 그래 거기어서 하두 기가 맥혀서 울었다 그거여, 그래서 울바위, 그래 그 밑에 조금 내려오다가 희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사자 : 예, 희연] 흐연, 흐연, 그 산을 돌아 내려오다 보니까 흐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와 보니까, 산맥이 붙어 내려왔단 말이여. 그래 무릎을 치면서, “흐연하다(희안하다)” 해가주구 그래서 흐연. [일동 : 웃음] 갯을 벗어났다해서 ‘갯바위’, 울었다해서 ‘울바위’, 음, 흐연, 희한하다고 해서, 무릎을 쳤다고 해서 ‘흐연’이. 그러다가 타구서 내려와서 여기 시방 온천 남산, 남산에 와서 보니까 왕이 날 자리가 온천, 시방 탕자리다 탕자리. 그래 탕, 이 산맥이 내려와 가지고서 왕이 날 자리로해서 쫓아 내려와 보니까, 왕이 날자리가 탕이예요. 탕이 졌더라 그거예요, 도선이가. 그래서 그런 뒤 그 후루 전조에 대해서는 누가 왔다 갔는지를 모르지만, 아조에 와 가지고는 세종대왕 전에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종대왕께서부텀 온천을 사뭇 죽-역대 왕이, 정승님이 이 온천을 와서 목간두 하시고, 또 세자가 어늬 세잔가가 여기서 둘인가가 났어요. 이 목간 오셨다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왕날 자리가 적다해서 그 세자가 낳느라고 그랬는가 보다고 하지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4】

고시네 유래

중으루, 자기 어머니가 고씨란 말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이니께, 이 무후가 돼서, 통 뒤가 끊겨서. 통 물한모금 얻어 먹을데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시방 김제 만경뜰 거기에다 모이를 쫓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징계 만경뜰 들판에다 쫓다여. [청중 : 고씨래 밥 먹으라고.] 응 그래 가주서 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에 가서 일할 적에, 찻밥을 떠 가지고 ‘고시네’ 하고 뿌리고서 밥을 먹어요. 시방까지, 지금. 그때부터 그러한 것이 오늘날까지 ‘고시네’하고서 저 밥을 떠서 들판에 밥 가져가면 내버리는 게 그 도선이 어머니께다 먼저 바치는, 그런 데다가 자리다가 자기 어머니 모이를 쫓습니다. [조사자 : 그게 도선이 어머니.] 예. 도선이 어머니, 전라도 김제 만경 뜰에다 쫓다 그거예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5】

충무공 산소 유래

충무공 산소를 여기서 한 십리 가량되는 저 설화산이 있어요. 설화산 꼭대기다 잡았어요. 중국에 부사춘이라는 분이요. 부사춘이라고, 이름이. 그분이 설화산 꼭대기에, 그래 거기다 선산을 모실라고 인제 자기가 생시에도 해전을 하느라고, 일평생을 팔년풍진을 지키느라고 해변에 가서 지냈는데, 시방 죽어서 말이지까지 이런, 산말랭이니까, 이런텐 썰 수가 없대구. 그래 그러냐구. 게 요기서 온양읍내가 있어요. 온양 읍내와서 뒷산에 와서 잡았대요. 온양 읍내 뒷산을 잡으니까 그 때는 모이를 쓰면 그 밑에 관사를 전부헐어야 돼. 그러니까 이 민폐가 많아서 안되겠다구말여, 헐 수 없이 음봉면 사 삼거리, 그 안에 그게 무슨 동네... 소풀 앞에다 산소를 잡았어요, 충무공 산소를. 게 거기다 모셨다 그 얘기로. 부사춘이 죽은 뒤에 백칠십년 후에 박상이라는 저 명사가 났어요. 게 그 모이를 씨구서 삼대를 청춘과부만 나는게야, 아들두 못낳구. 그래서 집이 재변이 났다 해가주구는 그 박상이가 명사라구 하니까 디려다 봤다 그 말야. 그래 박상이가 보니까 못씨겠거던. 그래 파묘를 해야 된대구. 그래 구서 시방 모신데 그 자리다 파묘를 할라구 자리를 잡구 광증을 짓구 모두 이러구 그 모이를 파보니까 거기다 뭐야 석편을 묻었다. 그게요. ‘요마 박상이 차묘천장이라’ 백칠십년 뒤에 요망한 박상이가 나가주구서 이 묘를 옮기리라구 썼대요. 묻었대요. 백칠십년 뒤에 박상이가 나서 왕길 줄까지 알었대요. 그래서 시방 박상이 소점으루 시방 모신데두 삼거리 그 위예요. 거기다 갖다 모셨어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6】

임금이 왕립할 자리

정조대왕께서, 그 사도세자라는 분이, 영조의 아들이, 정조의 아들이지, 사도세자가. [청중 : 아 사도세자가 영조의 아들이지,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여.] 그 억울하게 두주에다 넣고서 풀로 푹 덮어서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었다구. 정조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그래 인제 등극을 한뒤에 하도 그 자기 아버지가 원통하게 죽어서, 그 능이 수원에 계시거든, 사도세자의 능이. 그런게 매일 뭐 한달에[청취 불능] 스물아홉번씩 매일 댕기는 거여. 자기 선산에 댕기느라고. 그 당시에 미행으로두 말이며. 너무 번잡하면 그냥 걸어서 온단 말이며. 그러다가 그 수원을 걸어서 한번 오다가 오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를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모이를 쓴단 말이야. 그랬는데 못쓸 땅에다 쓴단 말이야. 못쓸 땅에다. “그래 왜 여기서다 쓰느냐” 그 말이며, “다른 데다 쓰라” 고 하니께, “아 다른데다 옮길 수도 없구 이렇다” 구 말이며,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구 말이며. “그래 이 모이자리를 누가 잡았느냐?” 고 하니께 말이며. “저기 저 거시기…….” 꼭같은 전준 이가여. “저 이생원이란 분이 잡아줬다” 그 말이며. “원 이런 소행이 꽤썸한 놈이 있나. 어디 사느냐?” 고 물은께, 그 근처 어디 산다고 그런다. 그래 인제 거기를 가셨다는 게여, 인제 정조대왕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쫄세기를 삼구 있구, 아주 다찌그러져 가는, [아 얘기를 잘못했네] 그래서, “어디다

쓸 수도 없다.” 구. 그런게 결국은, “다른데다 잡아 주라” 고 그런게, 다른데. 인력이 있나 뭐 있나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게 그 수원 유수께다 통지를 했단 말이며. “여기 이 모이를 좀 쓰게하라” 고. 아 그래 통지를 하니께 그렇잖아 수원유수 또거든, 수원유수가 말이지. 아 임금께서 명령을 하니 아주 장사를 호화롭게 잘지내 줬단 말이야. 그러고서 인제 그 집을 찾아갔어. 그런데 다 쓸어져 가는 집에서 쉼새기를 삼고 있던 말이며. 그래 인제 그 물은 거여. “그 저 거시기, 당신이 지관질을 하느냐”고. “아이 뭐 알기는 못 알지만 누가 모이 자리를 달라면 더러 일러주는 일이있다.”구. “그 아무것이 이 소감에 모이자리를 누가 잡아준 일이 있느냐”고. “아 그 내가 잡아 줬다” 고 말이지. “아 왜 그런데가 어떻느냐” 고 말이며. “그 대진데 어떻느냐” 고 말이며. “아 대지라니, 어떡해” “하관시에 수원유수가 전부 나와서 호령하구 모셔줄 자린데 그러느냐”고. 아 가만이 생각하니, 뜨겁게 알거던. 그래, “아 그렇게 아는 분이 말이며. 당신은 집터나 좋은데 잡지, 이런데서 사느냐” “아 이 집터가 어떻냐” 그 말이며. “이 집터가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를 함께 임금께서 여기를 왕림을 하실 자린디...” 그렇게 알더라구, 그래.(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7】

남사고와 구룡쟁주(九龍爭珠)

남사고가 명산디. [조사자 : 남사고쨌?] 응 남사고지, 사고, 생각 사 남사고, 남사고 자기 할 아버지 모이를 구룡쟁주, 아홉용이 구슬 다루는 데다 잡아 썼더라. 그래 잡고서 아홉번째 쓰는 참이여. 그런데 경중에서 말이며, 무슨 소리가 외이더라 그거여. “구천구장 남사고야. 구룡쟁주 엇다두고, 구사, 응, 구사 웬일이냐” 아홉 뱀이 죽은데다 쓰는 것은 무신일이냐 그 말이며. 구룡쟁주인 줄 알았더니 배암 아홉죽은 데다 갖다 썼다 그 말야. [청중 : 배암.] [일동 : 웃음] 구룡쟁주 엇다 두구 구사축와(九蛇逐蛙)여, 아홉 뱀이 개구리 하나를 갖다 쫓는다는 거여. [조사자 : 예, 구사축와요.] 응 구사축와, 개구리 와짜, 쫓을 축자. [조사자 : 거 구룡쟁주로 알은 이유가 뭐예요. 구사축와를.] 잘못 봤지. [청중 : 잘못 본 거여.] (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18】

동산(銅山)의 동종(銅鐘)

당나라 때 동방색이라는 사람이, 왜 나이 먹은, ‘살라면 동방색이’라고 하잖아. 삼천갑자 동방색이라고. 당나라 때 그 궁궐에서 낮이, 궁궐은 네 구텡이에 이렇게 종을 해 달아거든. 종, 이렇게 치는 종 있잖아. 궁궐이니겐 네 구텡이에 종을 해 달았는데. 그 종이 운단말이여. 아 그런게 그 대신들이나 뭐 전부 인저 이케 무신국가에 큰 재변이지 말이며. 메달아 놓은 종이운다 이거여. 큰 재변 났다고 전부 인저 거시기 모여 가지고 그 대신들이 모여 가지고 그저 상술하든지. 이기 무슨 재변인지 도저히 파악하는 분이 없다 그거여. 그런데 그 때, 동방색이가 오래 살고 말이며, 알고 그러거든. “아무튼 이 동방색이를 불러다 물어 봐야겠다” 그래 동방색이를 불러다 불러봤어. “그래 동방색이, 이거 종이 대낮이 멀쩡한 낮이

우니 이게 무슨 국가에 큰 변이 있지 않느냐?” 그래 동방색이 대답이, “이 근처에 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 동산, 구리산, 그 동산이 무너지는 머리에 그 힘으로, 그 종이 구리종이 건든, 구리종. 그 전에는 구리로 종을 맵드는 거여, 그래야 소리가 나거든. “그 에미가 무너지는 그 힘에 이 구리를 캐다 맵든 그 종이 그 힘으루 우니 가서 알아보시우” 그래서 인저 그 국가에서, “이 근처에 동산이 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그 몇십리 바깥에 그 동산이 있다고 하거든. “그 동산이 무너졌나 가봐라” 가 보니까 동산이 그만 무너졌단 말이여. 그런데 그때부터 이 모이를 쓰며는 그 자손에서 영향이 있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이게 인저 숭상인 기여. 그전에는 숭상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죽은 부모의 뼈를 잘 묻으면, 그 구리나 마찬가지로 아니여? 이 뼈의 손이 잘된다. 이래갖고서 모이를 잘 쓰면 자손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전설이 있어.(구연자 : 조중렬)

【운천동 설화 19】

오성과 대장군

오성이 인제 공부를 다 하시고서 인제 아마 그 처음에 과거는 합격은 못했던 모양이지. 한 때 강원도 어딜 들어 가서 산을 돌아 땡기며, 땡기다가 질을 잃었어. 그래가지고선 그전에는 강원도 들어가면 사십리 오십리씩 무인가한 것이 보통이었던 모양이여. [청중 : 그랬대.] 그래 질을 다 아는듯이 자꾸 골안으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질도없고 이렇게 보니까 흉악한 숲속에 큰 개와 짐이 상하채루다 있네. 이래 일모는 됐구. ‘에이 여기나 찾아들어갈 데 라구’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아무두 없어. 그 하도 이상해서 자꾸 소릴 질러두 없으니까. 아마 대문을 어떻게 잠꿨는지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떠난지가 얼마 안되여. 그런데 그저 마루가 먼지가 뽀얀하고 빈 집이여. 그런데 돌아대니면서 보니까 곡식두 있구. 건건이두 적어도 한 열흘 전까장 먹던 건건이 남은게 있구. 그래 아무것두 없어. 밤은 어두었구. 그래 왜의레 그런 집인 안방에 이게 다락이란 게 있어요. 어느 집이구 잘 지은 집은 이게 있거든. 이 놈을 비틀어 열구선 뜯어 보니까, 아이구, 황초가 팔뚝같은 황초가 수북히 쌓여 있고 그렇거든. “아, 이놈의 초 꼬내가지고서 불이나 밝혀야 겠다” 하구선 초를 꺼내가지고선 부시를 쳐가지고선 불을 맨들어서, 이 어둡고 하니께 사방 다 갖다 쫓여 놓고선, 자기 손으루다 불을 좀 때구, 방이 차니, 아마 한 삼사월 됐던 모양이야. 그라곤 이라고 앉았으니까, 그 괴괴하니, 배는 고프구, 그 보니까 곡식두 있어. 쌀두 먹다 남은것도 있는데 몇말 될게 있구. 자기 손으루다 죽두 아니구 밥두 아니구 그냥 좀 끓여서 허기를 면하고, 이래가지고선 앉았는데. 밤중쯤 되니깐 천병만마가 들어 오는 소리가 나는데 굉장하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대장인 모양인데 말을 타구, 그 군졸이 수백명이 용위를 하고 앞마당에 떠억 들어서, 그래니겐 주인이 문을 열고서 마루에 나가서서, 마루에서 뜰아락으로 내려서니까, 거침없이 말에서 내린 그 대장이 올라와. 들어오라고 할 것도 없이, 와서 마루로 들어오니까 방으로 안내를 해. 안내를 해서 아랫목을 주니까 아랫목에 떠억 앉어. 그러니 무엔 영문을 모르는 일이지. 그래 오성이 옷목에서 무릎꿇고 앉아서 물었대야. “장군은 누구시며 우째 이 집을 찾아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난 사람이 아니다. 영혼이다” “영혼이시면 존함은 누구시라고 하십니까?” “대장군이라고 하면 알게다” 그럼 대장군이면 어느 땐고 하니 이 전조 고려 때거든, 이 대장군이 있어, 고려 때. 그 고려 중엽쯤 이후지, 아마.

“그 우째서 이 집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 내 무덤이 바로 이 뒤 장광 옆탱이, 초당인가 뭐 지었는데 그게 내 무덤이다. 아 이 못된 것들이 여기다 집을 지어서 내가 뼈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그걸 좀 헐어 달라고 애길 할라고 여길 찾아오면, 죽는구나, 이놈들이. 그래서 이 집이 그 십명 살던 놈의 식구가 다 죽어 나가구서는 거 몇 남았을텐데, 그도 떠 버렸다” 는 기야. 그래 그 얘기여, 그래 빈 집이여. “아 그럼 그 대장군의 산소 위에다가 어째서 초당을 짓게 했습니까?” 그런게, “아 후손들이 못생겨가지고 나를 돌보지를 않으니깐, 고충이 돼 가지고서. 아 이 무식한 놈들이 이 집에 사는 죽은 전 주인이 아 거기다 대고 저의 딸 데려다가 글 가친다고 초당을 지었는데, 아 당채 머리를 위시해서 다리께 까장 찍어 눌러서 아파서 견딜수가 없어서, 와서 그 하소연을 할려고 하면 죽어버려. 그러니 너는 보아하니 가히 남자구나. 나 그거 네게다 부탁을 좀 한다” “그럼 그거 뿐입니까?” “아 단순히 그게다” “아 그까짓 놈의 거, 그거 헐어 내 버리면 될긴데, 그거 해 드리리다. 내일 지가 떠날라고 했더니 떠나지 않고 그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래 일어나서 군사를 물고.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가 보니까 편편하게 하고 거기다가 초당을 지어 놔오니깐 별 표가 없지. 그래서 인저 아침을 한순갈 끓여 먹고서, 한 삼십리 이상나와서 동네가 있는데, 동네에 나와서 물었더면 그랴. “이 동네 대장군 모이가 있었다는데 어디께쯤인지 아니냐?” 하니깐, “대장군 모이지. 예전 대장군 모이라는데 거기 왜저, 저 아래 빈집 초당지은 데가 대장군 모입니다” 아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네들 품값은 후히 줄 터인즉……” 그 집이 있는 것가지고 쥐도 녀덕하겠어. “우리 한 여나쁜 품을 사야겠다” 데리고 가서 그날루다 상큼하게 뜯어 가지고선 사실인가 하고 여쭙보니까. 예전에는 회상명정이라는 게 있어. 회를 쓰면 말야. 이 두께에다 회를 쓰고서 그 위에다가 밟아 놓고선 글씨를 쓰거든, 손가락으루다. 여기다가 가락지를 손뽀경을 해 끼고는 그 놈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조사자: 예, 굳기 전예요] 굳기 전에, 밟아 놓구 이렇게, 그렇하고선 숯가루를 갖다 그 흥에다 집어넣어. 그러하고 묻어 놓으면 만년을 가도 또뚝 클르면 관작명정이 죄 나오거든. 회상명정이지. 아 그러고 보니까 고려 어느 대왕때 대장군의 모이라는게 뚜렷하게 나왔거든. 그래서인저 그 자리서 뜯어 내버리고 그라고서 봉분해서 멀끔하게 해줬단 말이여. 그래 인제 그 날밤에 거기 또 있으면 또 올걸 알구. 또와요. 오더니 하이 치하가 굉장해여. “아, 너를 만나서 참 뵈하겠다. 내 백골이 편안이 있겠다”고. 그래 인저 오성이 물었다는 기야. “장군님은 저승에 가셔도 이만하게 훌륭하게 계시는데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얼하며 죽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니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남에게 밀에는 안 돌겠다. 위로 돌겠어” 또, “장군은 돌아가신 지가 몇해가 되는데 지금은 영혼이 그렇게 뚜렷합니까?” 그런게. 사백 몇년이라고 하더랴. 그래 인저 오성이, “그럼 생은 죽으면 영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게. “너도 한 삼십년은 같게다” 삼십년. [청중 : 삼십년? 삼백년.] 삼십년. 그래 그 영혼이라는게 있구 모이자리가 있구, 백골을 안장해야지. 안하면 그 자손이 안된다는 것을 난 절실히 믿고 있어.(구연자 : 이인규)

【운천동 설화 20】

윤용렬과 변장군

요기에 탕, 그전에 탕정면인데, 시방은 온양면이, 온양읍이 된 모동리가 있어요. 바로 이 웃동네에. 거기 변씨가 살거든요. [청중 : 꽃불 변자여.] 그 분들 선대 조상모이가 안성 솥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솥골. 그럼 그 족보나 뭐나 다 안성 솥골서 있고, 있지. 자손이 통가본일도 없어. 전도 없어. 이권 전조 변장군의, 변장군이거든, 자기 조상이. 변장군인 줄만 알지 가 본 일도 없다, 이거여. 그런데 시장 윤대통령 할아버지 윤웅렬씨가 한국 말엽에 안성군수를 가셨다 그게야. 그런데 꿈을 꾸니까 아 변장군이 와서, “나는 저 수풀 사는 변장군인데 내집 옆텡이다가서 다른 놈들이 모두 투장을 해가주구서 전딜 수가 없으니 그것 좀 파달라”구. 그래 그 참 윤웅렬씨가 삼남도포사까정해 담력이 상당히 크신 분이거든. 아 이거 무신 놈의 꿈이 이런 꿈이 있느냐구 말야. 아 그 날 이저, 시방으루 이름 출군을 해서 나갔다 이게요. 그런데 봄이 됐던가 즐린단 말여. 그래 이렇게 조니까 아 낮에 또 와서 그런단 말여. “아 그 왜 내 집에 거시기좀 없애 달라니까 안 없애주느냐”고. 아 눈을 떠보니까 꿈에 그러드니 아 또 낮에 와서 그런단 말여. 그래 그 이방덜을 불러가주구는, “여기 이 근처에 소풀이라는 데가있나 변장군의 모이가 있나 가보라”구. 그래 그 이방덜이 나가서 아 그런 거시기 없다구 그러거던. 게 그런가 부다 하구 또 그래 즐림이 와서 또 잤단 말여. 낮이 낮에 봄에. 아 또 와서 그랬단 말여. 아 왜 그러느냐고 말여. 그 내 거시기 좀 치워달라니깐 왜 그러느냐고 말여. 아 그래 하두 이상하니까, 그래 이방더러, “여기 소풀이라는 동네가 어디냐”고 말여. 게 인저 이방덜 모두 여럿을 데리고 갔다 이게여. 게 소풀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여기 변장군의 모이가 어딴냐” 하구 찾았다, 그게여. 그래니깐 그 어떤 노인이 있다가, 그 이전 장군이니까, “변장군의 모이라는 디가 저기 저 저기있다.”구 말여. 그래 가서 옆텡이를 보니까 어떤 놈이 뒤를 파구서 모이를 썼단 말여. 그래 와서 있으니까 또 그날 저녁에 꿈에 참 고맙다구 말여. 게 이 모동리 변씨네가 다는 아니구 일부가 그 자손들이여. 시방 모두 살아유, 여기.(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21】

청댕이 고개 유래

청댕이 고개 그 이름 붙인 거. 병자호란 때 중국 사람이 여기와서 이 온양읍에 와서 아까 말한 이 [청취 불능] 라는 사람이 온양읍내 화선 주둔하고 있었어. 주둔하고 있다가 평화될 때에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어. 쳐져서 여기 산사람도 있어. 그때 만이 쳐져서, 여기 원씨라든지 뭐 중국성 가진 사람은, 그때 쳐진 중국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승전을 해서 우리나라 고향에 가게 해 달라구 청댕이 고개 고 만랭이(마루)다가 당집을 지었어. 불당처럼 당집을 지었어. 당집을 짓고선 고기다가 뿔을 해 얹히구선 기도를 했어. 그래 청당이야. 그래서 거기 청댕이 고개라고. [조사자 : 청나라 당이 있다고] 예. 청당리라기도 하고 거기서 사는 기여. 그래서 청댕이 고개여 그게. 청나라 당집이 있었다. 당, 집당자. 그래서 청당리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거고. (구연자 : 조상묵)

【온천동 설화 22】

효자바위 전설③

고개 옆댕이에 과부된 어머니하고 홀애비 아들이 살았어. 아들이 사는데 하두 가난하니께 장가두 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 아들이 일 땡기면서, 와서 조식해서 어머니날……. 어머니가 팔다리를 못 써. 다리를 못 써. 이 중풍 들렀으니께. 그런데 중풍들리면 먹는 건 아주 아구같이 먹는 게여.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고 사뭇 꾸중이네. “예, 뭐 좀 해 오너라.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고 소릴질러. 그러니 이 아들로서 얼마나 민망하겠어. 굉장히 민망해서, “아이구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디. 큰 동네에 개가와서 어떤 개가 하나와선, 그 문앞에다가 똥을 똥어. 똥을 똥는데 개, 시방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사람이나 개나 콩보리밥을 먹었지 뭐여. 보리밥은 얼른 삭지 않는게여. 소화가 그렇게 속히 안되는거여. 아 이놈이 똥을 똥는데 한바가지는 똥어. 똥어디 보리쌀이 전부 삭지 않고 그냥 오르르 해여. 그런께 이 아들이 얼른 갖다가 그 놈을 바가지다 담아가지곤 그 앞에 냇물에 가서는 깨끗이 닦았어. 밥을 하니께 밥이 한 사발이여. 그래서 그 놈을 갖다 드렸지. “아니, 너 어떻게 밥을 했니?” “예, 쌀 팔아 왔어유. 보리쌀 팔아 왔어유.” 그러고선 해 드렸어. 그랬더니, “잘 먹었다. 눈이 번하다.” 그러네. 아 그러더니 느닷없이 구름이 끼더니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구선 야단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머니에게 똥을, 개똥을 갖다 드렸으니 내가 죄를 지어서 벼락이 때릴 겐가부다. 벼락을 때릴러나 보다’ 하고선 마당 그 개똥 그 담 근처에 가서 섰으니꺼니, 날이 흰하게 밝아선 번쩍들어가. 아 그러더니 그 싸가주구선 그 바위광이에다 갖다 놓더니, 저는 저를 때릴줄 알았더니 동맹이를 딱 때려. 바로 기절했지. 그랬는데 돌맹이가 딱 갈라졌지. 갈라졌는데 저는 가만히 놀라 생각해 보니까 놀랐으나 벼락을 안맞았거든. “하 이상하다” 하구선 눈을 떠보니까 금덩이가 이만한 놈이 번쩍번쩍 한단 말야. [조사자 : 그 바위속에서.] 그래서, “아 이것이 나를 우리 어머니 봉양하라고 하늘이 주심이다. 하느님이 주심이다.” 인제 그 때는 하느님을 찾았단 말이야.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서 집두 장만하구 쌀두 팔구 그래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유. 그래서 이 효자바우라고 거기다 써 있구선. 시방 가 보면 있어유. 거기다 새겼어유. 김신이여, 이름이 김신, 그 효자가 [조사자 : 믿을 신(信)자요?] 응, 김가. 믿을 신자하고 외자 이름이야. 김신이가 효자 김신이 벽암사은이라고 새겨 있어유. 시방 가면 글자새겨 있어유. 여기 동네 사람들이 했는디, 군에서 했는디, 밝혀서 했는지 거기다 똑똑히 아주 새겨 있어유. 벽암사은이라. 효자 김신이 천감기효하야. 효자 김신은 천감기효하야. 하늘이 그 효도에 느껴서 벽암사은이라. 벽, 벽자는 저 우뢰 벽(霹)자 있잖아요? [조사자 : 벽.] 암, 바위 암(巖)자사은이라 줄 사(賜)자 이렇게 똑똑히 해 두어야지. [조사자 : 이렇게 벽에 새겼어유. 벽암사은이라고.] 줄 사자를 쓰야지. 생각 사(思)가 아니라 [조사자 : 줄 사자죠. 저 정확하게 쓰면은……(다시 써보임)] 예, 그렇죠. 사은, 은혜 은(恩)자가 아니여. 은 은(銀)자요. 은을 줬으니께. [조사자 : 아 은, 은을 줬다 그 말이에요.] 금을, 금이 아니고. 쇠 금 변이 있어야지. 은 은자. [조사자 : 아 은행이라고요.] 벽암사은이야. 바위를 벼락 때려서 은을 줬다.(구연자 : 조종렬)

【운천동 설화 23】

토정이야기

아산 자사에. 거기가 자살기여. 그 때는, 아산 자사라구. 아산군, 이긴 아니구 이긴 온양이구. 아산 신창 이 시고을이 합해서 아산군이 된 거여. 그래니꺼시니 거개는 진짜 아산이지.

[조사자 : 아산이라고 지도에 있어요.] 응, 지도에, 진짜 거기가 아산이여. 여기는 온양이구. 저기는 신창이고, 그래 세 고개 합해서 아산이 된거지. 그래 행로가 셋이지. 온양행조, 신창행조, 아산행조 이래 셋이 있습니다. 고을마다 공자님의 사당은 다 있게 마련이니께. 그래서 토정이 아주, 아산이 아니라 아주지. 저 아주 목사로 오셨어. 그 년도는 여기서 토정이 여기와서 일 많이 하고 여기와서 돌아오시고. 그런데 그런 이도 운순 막지못해. 왜 남 죽을건 다 아시면서 자기 죽을건 몰랐느냐 말야. 그래서 내가, “천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암만 재주가 좋다고 그래도 천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양반의 얘기가 참 좋은 얘기도 많고 그래요. [조사자 : 그래, 그 차근차근하게 해주세요. 좋은 얘기란 걸.] 아주 목사루 오셨을 적에, 토정비결이란 책이 있어. 그런데 그 양반이 삼춘이 있어. 삼춘이 있는데. 학식도 그리 많지 않고 또는 뭐 재주도 없구, 무위도식이야, 그냥 놀구서 밥만 먹구 그냥 있어. 그래니깐 자기 삼춘보고선, “작은 아버지 그럭하지 마시오. 내가 뭘 하나 맨들어 드릴께 그걸 가지고 땡기면서 밥이나 벌어 자시우.” 그래가지고 토정비결을 맨들어 줬어. 그걸 자기가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선 책을 맨들어줬어. 토정비결은 안가지고 왔다. [조사자 : 토정비결은 없는데. 여긴 없어요] 네. 가져 와야지. [나가서 토정비결책을 가져옴] 이런 걸 보면서 해야지. 토정비결을 봐서 밥이나 해 잡수라고 해줬어. 그런께 자기가 박봉받아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자기 삼춘 맥여살릴 수가 없으니까서 이걸 넣어서 땡기면서 밥이나 얻어 잡수라고 해줬단 말이야. 해줬는디 아직도 그렇게 맞춰서, 맞추거든. 그래서 인제, “그거 너무 맞아서 안 되겠다고. 가져오라.” 고. 그래가지고선 더 고쳐냈다는 거야, 몇 군데. 그래서 그 고친 데 닿는 사람은 안 맞고 고쳐지지 않는데 닿는 사람은 맞는다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기 삼춘을 위해서 토정비결을 만들었다. 이 양반을 왜 토정이라고 하고 하면 흠으로 쌓아 올린 정자에서 살았다고 토정이라고 그라. 때로는 모정이라고. 그런데 이 양반은 정치를 잘하고 아는게 많은 분이라서, 아주 전부군치를 어떻게 하면 아주 미신적, 미신적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시는 양반이야. 그러니 틀림이 없지. 그런께 그 당시에 천기를 본다는지 뭐 철학적으로 이래보니 아산이 약 삼분지 일은 바다가 되겠어. 저편쪽으로 바다 두 있거던. 그래 시방 아산만이라는 게 이게 터져 들어온 데여, 거기가. 그전에 다 그 동네여. 그라고 그 밑에 달개별이란 데가 있어. 달개별이라고 터진 데가 있거던. 그 시방 그 큰 바다지. 인제 그 아산만 막아가지고선 반은 찾았는데 그래도 아주 멀었어유. 그런데 아무 날은 생각하니까 그 강물이 꼭 터져 들어온단 말이야. 터져 들어오겠단 말이야. 바다가 되겠단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동네 사람을 모두 구해내야 될 텐디. “아무 날 터지니까 이거 다 이사갈 준비를 하고 피난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니께, 토정이더러, 미친놈이래. 미친 놈이랴. “아 이거 어째 이런데가 바다가 된단 말이, 말이 되는 말이냐구.” 그래서 인제 거기거 고용산이라고 있어유. 높을 고(高)자, 솟을 용(涌)자, 높이 솟았다는 고용산. 거긴 표여. 고용산이 셋이유. 고용산이 아주 유명한 산이여. 높을 고자 솟을 용자. 그래서 인제, 그 고용산으로 올라 가야 산다. “고용산으로 안 올라가면 죽는다.” 이러니께 토정보고, “이걸 죽지. 여기서 바다가 몇 십 리라고 한 오륙십 리 되는데 무슨 바다가 터져서 우리가 죽는단 말이냐구.” 미친이라고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군직원들을 전부 나가가지곤 뽕짜리를 두들기구 집을 두드리구 피난가라구 소릴 질러두 인제 토정을 믿구 격려하는 사람은 다 따라 올라오고. 거기서 건방진 녀석들 말 안 듣는 녀석들은 이이를 안 따라와서 아주 몰살해 죽었지. 전 몰살해 죽었어. 그래가지곤 고용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선 피난을 시켰어. 피난을 시켰는데 거기 또 용한 소리가 있지. 올라가니깐 소금장사가 소금집을 지고

올라와. 올라오는데, 와선 받혀놓고선 그래 이 토정이 보고선, “여보 더 올라와야지. 여기 물들어 오오.” “여기 괜찮아요, 여기쫘은. 여기밖에 안 올라올기요. 물만 안 올라오면 사는 거 아네요. 무거운 거 지고서 거기까지 더 올라갈 꺼 뭐가 있어요.” 이라거든. 그래니 토정이 ‘이상스럽다.’하고선, 나중에 물이 들어온 뒤 작대기 만쳐논 밀구녕에 잘름잘름하게 들어왔더라. 그래 그 사람은 고 밑에 들어뉘 자구. 그렇게 용한 놈이 있더라. 토정이보덤 더 용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굉장하게 죽었어. 그래 죽은 뒤에 가끔 달밤이면 그 물속에서 죽은 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말하자면 환영이지. 저 건성 그림자가 새악씨들 하고 그 속에서 우는 소리가 나고 사뭇 물속에서 ‘날 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디야, 가끔. 오색구름이 찌면서 그랜디야. 그랬는데 자기 죽은 진 몰랐어. [조사자 : 토정이에요.] 토정이 몰랐지. 그 죽은 걸 알면 안 된다는 기여. 죽을라고 목숨 떨어지면서 살려고 살욕심이 있는기여. 그런데 그 때에 인저 모두 올라갔어. 올라가서 인제 모두 고용산에 올라가서 피난을 했는데 아전이 있어. 아전이라 건 시방으로 말하면 소사같은 거지. 군소사나 면소사나 그러구 소사라면 저 아전 있잖오? 이 군청직원. [조사자 : 군청직원이 다 아전이죠.] 응, 아전이지 뭐야. 그러니께 아전이라면 군청직원이 다여. 아전 한놈을 보고서 자기는 펍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선 토정이 말이지. “너 저 가서, 저 바위 좀 떠들어 봐라.” 아 떠들어 보니켤 단지가 하나 있는데, 황금, 노란금이 잔뜩 들었어. 이 속이 그렇게 전부 금덩어리야. “이 녀석, 그건 임자 따루 있으니까 도루 덮어 뒤라.” 그랬거든, 덮었거든. “누구던지 이런 소리를 하지마라. 절대로 선대면 안된다.” 이랬거든. 그랬는데 토정이 속병이 있어. 적병이 있어. 그 적병은 뭘 먹어야 낫는고 하니 지네집을 먹어야 혀. 오공집, 오공집. 지네집을 먹어야 하는데 지네집을 먹으면 밤 셋, 생밤을 먹어야 해. 밤. 그 밤하고 지네하고는 상극이라나서 밤을 죽으면 지네독이 싹 가지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꼭 가끔 말이지. 가끔 지네집을 맨들어 놓고. 맨들어 놓는게 아녀. 하인이나 아전이 해다주면은. “밤을 깎아 오라.” 그래서 밤을 깎아오면 먹고서. 자기가 앉아서 밤 치겠어? 깎아놓으면 그 지네집을 먹고서 마시고서 그 밤을 몇 개 덩겨먹으면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이 놈이 토정 그 원님이 없어야만 그 금항아릴 가지겠거든. 갖다 지가 부자가 되겠거든. 그래니께 이 원님이 밤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구선 버드나무, 버드나무 줄기깎아 놓으면 밤빛과 똑같습니다. 버드나무, 생버드나무를 생울처럼 깎아서 거기다 이래 놓으면 되도록 해 뵈다 말이야. 그런데 그 분이 생울 갖다 뵈거니 했지. 그걸 누가 생각이나 해여. 이 이는 이인이라면서 철학자라면서도 그건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끝을 몰랐지. 철학하면 뭐 하느냐 말야. 그걸 어찌 모르느냐 말야. 먼저 우리 같으면 말야, 밤부터 조사해 놓고 그걸 마실건디. 으레히 하는 거니까 하려고 하고 생각했고, 또 죽을 운명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마시고 이걸 먹을라니께 버드나무야. 그래니께 이 양반이 밤 밤 밤 밤하다 죽었어. [조사자 : 몸에 지네독이 퍼져가지고.] 그렇지. 독이, 독기가 온 전신이 퍼져서 돌아가셨어.(구연자 : 조상목)

【온천동 설화 24】

신랑의 아량

예전에 어떤 동리에 이 윗마을에는 김판서가 살고 아랫마을에는 이판서가 살거든. 그런데,

그 판서와 판서끼리니께 그 조정에서 만나고 하니께 의종게 살거 아녀? 그래서 왔다갔다 하고 이라는데. 그 김판서의 아들이, 그 이판서가 사는 동네에 글방이 있어. 글방이 있다고. 그래서, 이 김판서의 아들이 그 이판서가 사는 이웃으루다 글을 읽으러 땡겨. 글을 읽으러 땡기는데, 예전에 보셨을 테지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고 하니 글 읽으러 땡길라면 점심을 싸가주 가는데 밥망이라 게 있어요. 노끈으루다 망을 떠서, 그래서 늦그릇 식기에다 밥을 퍼가주구서 거기다 덮어서 거기다 넣어가주구서 이 들구, 껍은 인저 이런 책을 이렇게 [책을 하나 집어 겨드랑이에 낀] 끼구 갑니다. 거기 이판서의 딸이 있어, 딸. 이판서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예전에는 그 대가집에는 딸이 거쳐하는 그 초당이라구 뒤다가 별장을 짓구는 거기서 공부하라구 딸을 주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걸 초당이라구 그래, 풀초(草)자 초당. 뒤초당에서 공부를 하구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여. 그런디, 아 그 얹잔한 도련님이 밥망을 지구 책을 옆에 찌구 지나가는 걸 봄 아주 껍 굉장하니, 아름답게 지나맹긴단 말여. 눈두 안 뜨구 지나땡겨, 예전에는. 그렇지 았았어유, 양갓집 양반집 도련님이니께. 그래서 여가자 쳐다볼 적에 ‘껍 아름다운 남자다. 도련님이다’ 그땐 장가 안간 사람을 도련님이라고 그랬거든. ‘도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판서의 아들은 그 여자를 볼 것 같음. ‘아 얹잔한 색씨다. 저런 델 장가를 가면 저런 색씨한테 장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식을 했어. 발표는 못 해두. 아 그래서 일년 돼, 이태 돼, 이렇게 하고선 아주 그 여자두 도련님 가는 걸 못보면 궁금해서 껍껍 시간되면 나와섰네. 마당에 저 마루에나 마당에. 그래 이 이는 또 가면서 쳐다보고 가네. 갔는데, 그 왜 시방은 연애하면 있다구 하구 고백두 하고 그러지만 그 때는 어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인제 여자가 먼저 시집을 가요, 나 이는 갈터래두. 그래 시집을 갔거든. 그런데 이 도련님이 글방에 가도 글도 안되고 집에 와도 안되고, 그 여자만 생각하네. 그래서 그걸 상사병이라고 해, 그때는. 상사병으루다 병이 났어. 그러니 그걸 부모에게다 상사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소리가 있어서 그렇다 소리두 할 수가 없구. 이런데, 그 부모는 자기 귀한 아들이 았으니 의사를, 이의사 저의사 모두 데려다 치료하네. 치료하는데 한의사가 물었어. “너 았만해도 병이 이상스럽다. 뭘 소회가 있느냐?” 물으니깐 그 얘기를 껍 했거든. 그런게, “그렇다. 너는 질래 약먹어야 고치질 못해. 그런게 훨훨 땡기면서 바람을 쐬고, 또는 너는 어데가서 약물이라두 먹고 나가 돌아 땡겨라. 이럭허구서 유람을 해야 된다.” 그래 저의 아버지 보고서 그 얘긴 못하고 유람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병을 이젠 나왔다.” 즉 말하자면 휴양이지. “휴양을 해야 좋다.” 그러니께 그 아버지가 참 저 귀한 아들을 공부만 가르치고 있으니께 ‘아이거 무슨 뇌병이나 걸렸나, 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신이상이나 걸렸나, 이 정신병이나 아닌가?’ 이럭하고선 참돈을 많이 해서 주어서 이렇게 의복도 몇 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너 마음대로 놀다가 실컨 유람이나 하고 오너라. 그래 소풍하고 오너라.” 그런게 애가 아주 신바람이 나게, 그 동네를 물어서 찾아갔어. 찾아가선 거기, 저기 두부장사 할머니가 있어. 두부장사 할머니, 아니 두부장사 할머니가 아니고 팔죽장사 할머니래, 팔죽장사. 할머니한테 가서 수양어머니를 삼았어. 수양어머니를 삼고서 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새악씨가 일루 어디 시집을 왔는데 그 아느냐?” 고 그러니께, “안다.” 고 그러거든, “아무 데가 내 측근이 안다.” “이 이를 어떻게 만나게 해 줄 수가 없느냐?” “만나면 별 수가 없어, 어떻게 이저 남자가 그리로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께 여장복을 해라. 여장복을 입어라.” 그러니 남자니 어떻게 시방같이 하고선. 이 녀석이 여장복을 하고 이렇하구선. “방물장수를 꾸며라. 그래야 그 집을 들어가지. 그렇지 았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 그 여자가 아르켜주는 대로 방물장수루 꾸미구 이

력해서 방물짜을 이구 등우리를 이구 이력하구, 여복을 입구 이력하구, 얼굴이 이쁘니께 분
발르구 이력하니까네 배우자 같이 된단 말이야. 그래 갔어. 그 집을 찾아 가이까지 찾아 가
가주구 불을 느즈만치 찾아 갔지. 거니까지 가서 인자 뭐 밀기름두있구 분두있구 향수도 있
다구 그라구 바늘도 있다구 그러니까, 뭐 그 새악씨 참 시어머니 짜리가 노인이며, 안경을
떡 쓰구 그래 이력카구, 담뱃대를 물구 이력카고서 모두 뒤지는데, 이 방물장수가 왔다 하
니께 모처럼 오구가면, 시방같으면 많이 땡기지만 그 원일년에 한번이나 이태에 한번씩 오
는 방물장사니께 그 며늘애가 다 왔어. 며늘애가 셋이며. 그런데 이게 막내며느리며. 그래서
인제 결국 이것두 팔구 저것두 팔구 그래서……. [칭취불능] 저녁이 되네. 저녁이 되니까시
니. “아이구, 젊은, 젊은 것이, 젊은 여편네가 되기 때문에 다 늦게 어디 장사하러 땡기면
하루 저녁을 잘 때가 만만치 않아서 아주 고생이로라.” 고 그런께, 그 시어머니 되는 할머니
니가, “나 혼자 자니 그럼 오늘 저녁을 나하고 같이 자자.” 구. 그러니까, “아이구, 이거 고
맙다.” 구. 그래서 저녁을 해다 할머니하고 같이 저녁을 해다줘서 먹고 그러구서 새악씨 며
느리두 들이나 들어와. 참 셋이지, 셋이 같이 한군데서 저녁글 나누면서 이제 저녁에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책을 좋아해여. 그래서 그 옥루몽을
보거던. 그래니겐 이 이가 인제 남성을 여성으루다 맨들어 갖고 인제 그 저 말하자면, [조
사자 : 예, 강남홍이 같이.] 저시기를 하니, 배우 역할을 하거던, 그래서니 보이께니 어찌면
그렇게 잘 보느냐구 아주 할머니도 좋아하고 그 며느리들도 다 좋아해여. 그래두 며느라 두
몰랐지, 여태. 거 누군지 시방 모른 기여. 그래서 이제 이숙하니께 밤참을 해다 밤참두 먹구
이렇하구서, 시방으로 말할것 같으면 열두시나 이렇게 되도록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인제
밤이 오렸으니 자자고 시어머니 되는 이가, “난 졸린다. 자자.” 자는데 아 인자, “아이구, 어
른을 모시고 어떻게 자느냐, 난 잠을 험히 자는데 어떻하느냐?” 고 이랬어. 그래니까, “야,
젊은 애들은 늙은이하고 자길 싫어해. 나두 애들하고 안자고 혼자 자 버릇해서 좋잖다. 그
런께 저 시째 며느리 혼자 자니께, 괜 글방에 갔지 글방에 갔으니께 혼자 자니께 거기서 자
라.” 그래서 거기 가 자게 됐어. 자는데 인제 여자는 기탄없이 속곳만 입고서 우의 옷은 인
제 다 벗고 자는데 이 인 안 벗을 거 아녀. 그런께 자꾸 벗으라고 그라네. 그 깨끗한 옷 다
꾸긴다고. 벗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인제 윗도리는 다 벗어 놓고 이렇하구선 들이 누웠어.
들어 누웠으니 인제 그 속 얘기를 해야할 거 아녀, 전 모르거든. 그래 귀에다 대고선 서루
어루만져 가면서, “내가 아무게야. 김판서의 아들이야.” 깜짝 놀래거든. “아이구!” “내가 그
대를 작별한 뒤고 상사병이 나가지고 내가 미칠지경이야.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왔으니
께 그저 한번 하루 저녁만 같이 자자고. 관계하자고” 그러니까네 이 이두 서루 말 못하고
그리워하든 그를 만났으니께 이게 변을, 감쪽같이 왔으니께 그를 어떡해. 그래 하루 저녁을
참 유쾌하게 잤어. 그러고서 다시 오지 말기로, 오지 않기로 약조를 했네. “인제 그만, 이거
큰일난다고. 이거 양반의 집에서 이거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우리 가정 교육이 이렇지 않으
니까 이렇해서 안 된다.” “아 걱정말라, 다시 안온다.” 구. 이력하구선 갔어. 왔는데 한 닷새
를 지나니 가고 싶어 죽겠단 말야, 아주. 또 갔어. 또 가니까시니. 왜 왔느냐 소리 앓더라야.
그래 반갑더라. 그럴꺼 아녀? 그래 한번 저질러 두 번 저질러. 나중에 뵈하면 죽어버릴라구
생각하고. 아주 그 여자두 용맹을 부러가지고선 자기 남편은 어찌다 들어오지, 글방가서 자
고 그 이튿날 아침 먹으러 들어오고 이려는 판이야. 그래 한 두어번을 그 뒤루다 계속해서
갔어, 인자. 한 열흘만큼두 가구 한 스무날 만큼두 가고, 인제 땡겼어. 땡겼는데 큰이가 그
중 말이가 그런께 시아주버니지, 말하자면. 말이가 가만히 태도를 보니까 그게 남자지 여자

가 아녀. 그럴 꺼 아녀? 암만해두 서투르지. 그런데 막내 제수방에서 자고 가는데 막내 제수하고 그 남자하고,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 그 방물장수하고 태도가 틀리거든. 가만이 보면 속웃음치고 눈짓하고 아주 좋아한단 말이야. ‘저게 필시 꼭 남자다.’ 그런데 그이가 관상을 보거던. 철학을 배워서 관상보는 이여. 그래 상술을 연구하고 있어. 그래 보니깐 꼭 남잔디 이런단 말이여. 그래 그 참 기가 맥히지. 그래서 그이가 ‘이거 집안 망했다.’ 이래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있는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불렀어. 자기 동생을 불러서, “애! 저 너의 제수씨 방에 늘 와서 자는 여자가 있잖느냐?” “있죠. 나두 알아요.” “그게 남자다. 게 우떡하니?” “형님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짚은 규중 속에 있는 놈을 그래 까짓거 죽여서 갖다 어느 토굴에 가서 이 뒷산에 갖다묻어 버리면 누가 알아요?” 모를 게라 그러거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형님은 칼을 잘 갈으시오. 내가 칼질을. 아주 툭 칠께니께 남자놈을 툭 칠께니까. 쳐고서는 문밖에다 살그머니 내놓걸랑 피가 흐르지 않게 얼른 손바닥으로 독을 막아서 형님이 거 뭐 하나 못 들겠어요? 조그만 젊은 사람을, 그러하면 난 팽이 들구 이력하구, 뒷동산에 깊이 파구 묻어버립시다. 그럼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알아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 뭐 우리집에서 이 가정에서 사람 하나 죽였기루 무슨 탈나더라도 무슨 문제 아니다. 그런게 어땡겠니? 그렇게 하자, 네 말이 옳다.” 아 이래 짜가지고선 인제 들어가선 인제 밤이, 들어가서 자기 형님이 이렇게 해서 칼을 갖다가 갈라고 슯돌 갖다 놓으니 칼이 갈리는 기여. 신랑이 칼을 갈리는 기여. 이게 참 기맥힌 일이지. 이게. 그래서 인제 자기 칼을 들구서 자기 형님더러, “내가 콧 찧러서 피만 내구서 언른 문을 열고서 내놀테니께 형님은 바로 받아서 섯으로 쌓가지고서 바로 산으로 달려, 미리 바로 준비해 가지고서 산으로. 꼭 묶어서 형님이 저보다 기운이 세니께.”

뭐 젊은 사람이고 조그마하니께 무슨 이내니까, “갑시다.” “그래, 가자.” 이렇게 아주 상의가 됐어. 돼가지고서. “형은 요 마루에 문앞에 꼭 서 계시우. 서 계시야지 이거 잘못하면 안됩니다.” 그래갖고 들어갔어. 칼을 가지고 들어갔어. 들어가선 문을 잠그구선 불을 탁 썬는 기여. 탁 썬더니, “일어 나시오.” 그래 예전 불이란 게 전긴가 저걸끼여. 심지에다 불을 켜갖고 들어갔는데, 그러니 이거 어땡겠어. 둘이 벌벌 떨거 아녀? 말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일어났어. 일어나라고 했으니께 일어났던지, 앉았던지, “옷좀 벗으시오.” 아랫도리를 벗으라고 소릴지를 거 아녀? 저의 형 들으라고. 그래 벗겠어? 주저주저. “아휴, 실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여 입으시오. 나는 꼭 남잔줄 알았더니 여자가 분명하니 잘못 봤시우. 잘못 봤시우.” 그래 큰 사람이여. “잘못 봤시우. 아이 참 잘못봤습니다.” 아주 참 빌고서 말야, 문을 열고 나오더니, “형님! 생사람 여럿 죽이겠이유. 그 상가 뭐가 버리시우, 그 뭐하는 기여? 저는 형님 때문에 생사람 죽일 뻔했어요.” 이런 친구가 어땡느냐고. 아 이러니까네 저의 형이 그 어땡겠어. 그래선 저의 형을 시켜가지고선 거기 서서 상서를 말끔 뒤져서 저의 형하고 저하고 같이 그 책을 뒤져다 놓고선 불을 놓는기여, 뒤에서. 불을 놓고, “여자들끼리 자니 나는 글방으로 간다.” 그리고 가 버렸어. 그러니 어땡겠어? 살았지. 그래 아주 못한다는 기여. 그것이 아주 만장박수를 받은 내 얘기야. 그리하고선 했으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아량을, 아량의 의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어땡겠어. 아주 그 남편에게 잘하지. 지가 일시적 잘못 돼가지고서 그 남편의 용서를 받아가지고서 지가 산다 그런게니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겠어. 시방 같으면 이혼하니 별야단이 다 날텐데, 그땐 그래 아니었거든. 그 대갓집으루. 애두 아주 큰 후회를 하구선 그 아량을 받고선 살은 생각을 하니께 거기 다시 가겠어? 그래선 집이와선 지가 아주 후회를 하고 ‘아주 참 광호한 용서를 받고 왔으니엔 내

가 그런 맘을 다시 먹어단 안 되겠다'하구선 아주 맘을 고쳐가지고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럴거 아녀? 그래서 이네 모든 걸 후회하고선 전심전력을 공부에다 쏟았어. 그래가지고선 과거를 본다 해서 과거를 보러갔네. 그 사람두 과거를 보러왔네. 그런데 서루 말두 못하네. 서루 알지, 서루 잘 알어. 그래가주구서 과거를 돌다 같이 급제를 했어. 급제를 해가지고선 인제 조정에 같이 들어갔는데, 서루 말은 안 하나 속 가운데는 서로 도와줘, 그래가주구선 아주 국가에 동량 재목이 돼가지고 국정을 돌이 잘 해서 하나는 영의정이고 하나는 우의정이고 이렇게 같이 나가더리. 그래서 그 집이 아주 양가 흥왕하고 아주 잘 살았대. 그런 애기 얼마나 아량있구 좋은 애기냐 말야.(구연자 : 조상묵)

【온천동 설화 25】

열녀 바위

이 고개재 시암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고기 옛날에 고기 집이 있었는데, 열녀야 열녀. 열녀디 자기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꼭 밤이, 참 겨울두 눈이 왔는데 배를 먹으면 낫는다 그랴, 배. 저기 지방은 저장을 해가지고 겨울 사시장철없이 배가 있지만, 예번엔 그때에 먹어버리구선 지장할 줄은 모르거든. 그래서 삼동설한에 배를, 배를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배를 구할라고 마음을 먹는데, 꿈에 그 '광덕산을 너머가지고 저 그쪽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배나무가 있었다. 거기 가면 배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꿈을 현몽이 되거든. 그래서 이 분이 아주 뭐 날새기를 바랬거든. 꿈을 깨구선 바루 거기를 가는 거여. 거기를. 지방 저 불두있구 저기 전등이 있구 후랏쉬가 있구 그래서 밝지만, 그때는 등두 없구 등불을 해서 가져갈 수두 없구. 그래서 밤중인 기여. 가서 거길 찾아가주구 그 배나무 있는 데를 물으니 까 그 주인이, "이거 배. 우리두 요긴하게 즐랴고 두어 개 있는디 이걸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주 심장했던 걸 검부데기루 싸구 배일새루 싸구싸구 해선 독아지 속에다 넣었는디 몇 개를 넣어뒀다는디 성한 거 겨우 시개를 얻었어요. 다른 건 모두 썩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오는디, 올라구 그래니까는 큰 호랭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인제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무서운 생각으루 호랭이하고 얘기를 했어. "내가 우리 남편이 지방, 금방 죽을랴고 돌아가실랴고 그래서 이 약을 구하러 여기까지 와왔다. 그러니 내가 얼른 가야 우리 남편을 구할텐데 왜 이길을 막느냐?" 그러니께 들구 등어리를 쳐다보거든. 등에 타라는 기여. 그래. "등에 타라는 말이냐?" 고. 그런께 끄떡끄떡 하거든. 그래 등에타단 말이여. 타니께 후딱 오잖아. 그래서 와서 배를 다려서 해서 배물을 해서 배물을 드렸더니 병이 나섰단 말이야. 그래서 열녀바위란 말이 있었고 열녀시암이란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지방은 없어졌어요.(구연자 : 조상묵)

【온천동 설화 26】

배방산 유래

저 위 여기 용화리에 가면 방씨가 이 온양땅에서는 훌륭한 직안이었다는데, 이 중간에 잘못 돼가지고선몰락했거든. 방씨가 인물이 많아. 지방두 인물이 많습니다. 이 방씨네가 태조대왕

이 방씨가 훌륭한 인물이 많은줄 알고선 방씨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청취 불능] 보내가지고선, “너희가 전조에 섬기던 그 충성으로 나를 섬길 것 같으면 내가 너의를 잘 이끌어주마.” 고. 이런 사자가 보냈거든. 그래니까 그이가, 그이 되는 사람이 더럽다고, 더럽다구 그 사자를 죽여 버렸네. [네. 왕이 보낸 사자를요?] 응, 왕이 보낸 사자를 그랬으니 왕명을 거역한 거 아니여? [조사자 : 그렇죠.] 그래서, 기가막힌 일이지. 죽였는데 그 방씨가 아주 여기선 큰 일권이었어. 아주 큰 대관들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여기 배방산이란 산이 있거든. 산이름이 배방산이야. 어째서 배방산이나 할 것 같으면, 그 방씨를 나라에서 배해서 절 배자, 배해서 방씨를 배한 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 방씨 선조, 산이 좋거든, 선조를 모도 참 인저 모이를 쓰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당집을 지었어. 시방 말하자면 재실이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배방산이지. 절 배(拜)자. 모 방(方)자, 배방산이야. 그랬는데 태조대왕이 그 봉변을 당한 셈이지, 말하자면. 그래니까 방가들 전부 아주 멸족했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방가가 모두 도망하고 이랬잖았어요? 그래서 그 산을, 절 배자였는데 물리칠 배(排)자여, 시방. 절 배자가 아닌 물리칠 배자 배방산이라. 그래서 인저 물리칠 배자하고. 이게 참 중요한 기여. 모 방자 아니여 그게. 이래 방가를 배척하는 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어.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어느 대왕 때, 그 대왕 이름이 있는디……. 어느 대왕 때에 그 방씨가 대대로 출신이 있어유. 잘 나요. 인제 인물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 이 분이 글을 잘 지었어. 글을 잘 지어가지고선 여기 이 온양온천에 오는데 세종대왕 때라던가? 오는데 신작로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곤 그 말하자면 하소할 것이 있다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시방 민원이지. 그래 “전조 적에는 즈가, 저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방 와서 임금님의 녹을 먹구 임금님의 영토 내에 사니까 그전 즈 섬기던. 저 그전 조상이 나라에 충성하듯 저의는 이 상감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의 선조 때에 선조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 모 방자를 위에다 풀초를 해서 꽃다울 방(芳)자로 해 줄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시방 배방산이 됐어.(구연자 : 조상목)

【온천동 설화 27】

정북창선생 이야기①

여기 구온양에 정북창이라는 양반이 장군배라는 동네에서 났어요. 동생 고옥 두형제가 났단 말예요. 거기 그 난터가 시방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터를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서 가르쳐 줄테요. 그런데 북창이 열두 살 잡숫고 그 동생은 여덟 살 잡쉬서, 신창이라고요기 신창군이라고 있는데, 이웃 군이 있는데, 신창군수가 그 아이들이, 이 북창과 동생이 새소리를 하고 새말을 알아 듣는다하고 짐승의 말을 알아 듣는다고 그러니 불려다 본다. 그러니, 하루는 불려다 봤다. 마침 봄이 됐던가 앵매기라는 새가 제비같이 생긴 새가 있는데, 그건 사람이 사는데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앵매기 새끼를 한 마리 갔다 감췄다 말애. 그러이 인제 그 형제가 막 오니까 그 앵매기 예미가 그 새끼를 찾느라고 생 야단을 치구 날으니까 그 원이, “새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피불용(皮不用) 육불용(肉不用) 하이”, 가죽도 쓸수 없고 고기도 먹지 못하니, “방임 방임하소서”, 놓아 달라고 하는 소리올시다. 그러이 그래 가만히 보이 그 새끼를 감췄는데, 그 새끼를 놔달라고 하는 게다 그래. 그래

이게 신출귀몰하다 이거래.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하이께. 그때는 지필묵을 주고 공부나 잘해라 하며 보내면서 사람을 뒤에 따라 보내면서 저놈들이 가다가 무슨 소리를 할 테이께 자세히 듣고 오너라. 그래가다가 그 동생 고옥이 “아 그놈 중늬의 새끼래도 잘생겼다”그르이. 그런데 북창이, 그런 소리한다고, 함부로 한다고 아우를 나무라면서 그래. 그 뒤에 원이 그 따러 보낸 사람 보고서 그놈들이 가다가 무슨 소리 안 하드냐? 하고서 물으니께 “차마 말을 못하겠소이다.” 아이 뭐든지 좋다 들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께, “그놈 중늬의 새끼래도 잘생겼다”고 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신창 군수가 중의 자식이었다고 한다.] (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28】

정북창선생 이야기②

한 번은 여기서 유기장을 갔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 거먹 암소에다 콩을 신고서 팔러왔단 말입니다. 그래 북창이 가만히 보이께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소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팔어라고 그래 가주고서 그 소를 사다가 부리지도 안 하고서 맥여다 낭중에 죽으니 갔다가 묻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북창의 형제들은 배우지 안 하고서 생이지지(生而知之)를 하고서 그 귀신도 측량 못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29】

정북창선생 이야기③

정북창이 하도 아니께, 그 친구가 하나 있단 말애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5대 독신이여, 그래서 5대에 와 가주고 자기 아들이 또 죽게 생겼단 말이여. 그러니께 정북창이 하도 아니께 정북창 보고 “내가 5대 독신으로 영 대가 끊어지니 이것을 잊게 해 달라”고 하도 쫓아 다니면서 빌어대니께. 하도 거시기 하고 딱하니께 요 “관악산에 가며는 어떤 노인들이 바둑을 둘 테니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 가 그 주발하나 음식을 장만하여 가니께 어떤 노인 셋이 바둑을 둔단 말이여. 그래 거기 가서 엎드려서 이 얘기를 하니께 들은 채를 안 해. 그래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니께 한 노인이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내가 그래 5대 독신으로 자식하나 낳은 것이 명이 적어서 적으니 잊어 달라”는 소립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있다가 “그거 정염이 한 소리니까 정염이 나이를 떼어서 그리 붙여 주라.”고. 그래서 열다섯을 떼어서 그리 붙여줄 테니, 정북창이 열다섯을 감수를 해서 설흔일곱인가 서흔두 살에 죽었지.(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30】

정고옥선생 이야기

한 번은 그 [북창선생] 동생 고옥이 천장을 갔다오다가 해가 저물었는데, 그 새들이 이리저리 날러 댕기면서 얘기를 하니께. 집이 화재가 났으니께 화재 났다고 해서 얼른 가자고 하여 와 보니께 변소가 탔더랍니다.(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31】

배방성 이야기

배방성은 왕건 태조 8년에 진수목 장군을 시켜서 그 성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그 성을 쌓고서 지키고 있는데, 왕건 태조가 청주에 갔다가 후백제군에 포위가 되서 새경(사경)에 있을 적에 진수목장군이 단신으로 수만명을 무찌르고서 태조를 구해냈다는 성이에요.(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32】

조달봉선생 이야기

집 한칸을 장만 못하고 회덕, 대전 회덕면 학교에다 창고 하나 지어 놓으셨단 말예요. 그러하고, 효종대왕하고 아주 친절해. 그래가주고서 인조가, 효종대왕의 아버지 인조가 돌아가시고, 저 또 효종 그러니께 병자호란에 효종의 형제가 중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께 지금 남한산성에서 저 강화로 피난갔다가 잡혀가가지고, 남한산성 포위당할 적에 할 수 없이, 시방 말로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고는 그 아들 둘이 잡혀갔단 말애. 그래서 효종이 그 양반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가 임경업이 구해 가주고서 와서 그 분들이 할라고, 북벌을 할라고 시방의 중국을 칠라고 할 적에 내 10대조께서도 그 양반하고 동의를 했던거요. 그러다가 그 부자가 돌아섰으니께, 그냥 굶어서 돌아가셨단 말애. 그래서 충효정문이라고 충신정문이라고 해 가주고 여기 온양가면 부자 정문인데, 그양반 아버지는 효자고 그 양반은 충신이라 해서 정문이 있고, 지금 대전회덕에 가면 “몰세불망비(沒世不忘碑)”라 해 가주고 세상이 망해도 잊을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회덕군민들이 비를 세워서 시방 그면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10대조니께 하도 가난해서 돌아가신 뒤에 장사를 지내고자 해도 거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일어나 가주고서 장례비 전부를 해가지고 장례를 해주었어. [10대조의 호는 달봉이고, 이름은 조이숙이라 한다.] (구연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33】

환혼석에 얽힌 전설

충청남도 아산에는 학이 많았다. 그래서 학마을이 생겼으며 사람들은 학을 귀한 동물로 여기고 소중히 생각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학들은 알을 낳았다. 공청에서 한가히 장기를 두던 박행원은 솔밭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밖을 내다 보았다. “애들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놀아라.” 무엇인가 떠들며 놀던 아이 중 영분이가 힐끗 뒤돌아 보았다. “할아

버지, 순득이가 학의 등우리에서 알을 꺼냈대요.” “뭐가 어찌구 어째?” 박생원은 황급히 공청에서 뛰어 나갔다. 순득의 손바닥엔 학알이 있었고 깨진 사이로 학의 머리가 고개를 늘인 채 죽어 있었다. 박생원은 순득이를 꾸짖으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소리쳤다. 순득은 고개를 떨군 채 울먹거리고만 있었다. 박생원의 말대로 학알을 도로 갖다 놓을 생각도 않고 맥없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갖다 놓으면 뭘 해요?” “죽었던 살았든 갖다 놓아야 하느니라. 학은 원래 영물이니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벌받아요. 얼른 갖다 놓고 와.” 그제서야 순득이는 무겁게 발을 돌려 숲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죽은 학은 다시 등우리에 넣어봐야 살아날 리 없었다. “에이, 원 아이들 장난두 심하군……. 글썄 학의 알을 꺼내다니…….” 들어서려던 박생원은 웬지 꺼림직해서 순득의 뒤를 쫓아갔다. 어미학은 날개짓을 하며 새끼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참새 새끼도 에미가 딸렸을 땐 죽이지 않거늘 학의 새끼를 잡아 죽이다니……, 쫓쫓.” 어미 학의 애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가 민망하여 박생원은 그냥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오는 박생원은 그냥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오는 박생원은 연신 허끝을 찻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생원은 공청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때, 순득이가 혈떡거리며 박생원을 찾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웬 수선이나? 귀가 따갑구나” “ 하 학이 살아났어요” “뭐? 학이 살아나?” 순득이가 아침에 일어나 가 보았다는 것이다. 분명 어제 죽었던 학의 새끼가 살아나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는 것이다. 두 눈으로 푹푹히 보았다고 했다. “허, 그것 참 신통하구나. 죽었던 새끼가 다시 살아나다니…….” “어미 학이 품어 주어서 살았나 봐요.” 순득은 사뭇 신이 나서 좋아했다. 박생원은 반신반의하며 서둘러 신발을 찾았다. “어디 가보자…” 박생원과 순득이는 앞을 다투어 솔밭으로 향했다. 오솔길을 빠져 왼쪽으로 꺾어들며 큰 바위 옆을 지났다. “저것봐요, 할아버지.” 박생원은 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살아서 고개를 내밀고 우는 새끼 학을 발견했다. “거참! 기이한 일이다. 죽어간 학이 살아나다니. 필시 곡절이 있으리라…….” 박생원은 기뻐하며 등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은근히 궁금증이 머리를 들었다. 한번 등우리를 들춰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박생원은 입술을 축이며 발소리를 죽여 등우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어찌시려구요?” “가만있거라, 내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리라.” 박생원은 조심스레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 어릴 때 펴 짓궂었던 박생원은 아직도 나무를 기어오르는 솜씨만은 여전하였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알일까요?” 나무에 기어오른 박생원은 등우리를 기웃거리다가 무엇인가 손을 뻗어 집어든다. “알이면 왜 집었겠니? 돌이다, 돌.” 그건 꼭 주먹만한 돌이었다. 박생원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죽은 새끼학이 다시 살아난 것이 이 돌의 덕택일지 모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돌은 틀림없이 천하에 없는 돌일꺼야. 에미학이 어디선가 물어다 새끼를 살린……. 정말 모를 일인걸.” 학의 등우리에서 꺼낸 돌을 들고 박생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엔 박생원에 의해 서울로 옮겨져서 조카벌 되는 박승지의 손에 들어갔다. 때마침, 박승지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의 서장관이 되어 가슴속 깊이 돌을 품고 중국에 도착했다. 북경에 이르렀다. 저녁 무렵 박승지는 사람을 시켜서 북경의 상인 두사람을 불러 들었다. 중국 사백여 주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북경에는 득실거렸다. 이상한 돌이야기를 듣고 상인 두 사람이 박승지를 찾아왔다. “무슨 돌인지 좀 보여주세요.” “죽은 학을 살려낸 귀중한 돌이요. 천하에 이런 희귀한 돌은 또 없을 것이요.” “물건을 좀 보여 주셔야지요.” 박승지는 깊숙이 간직했던 보물을 꺼냈다. 꼭 주먹 크기만한 옥돌과 흡사했다. 모양은 둥그렇다. 한참을 이리저리 만져보던 두 상인은 이윽고 눈이 둥그래지며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이런 귀한 보물이 조선에 있었던 말이지요?” 어안이 병병한 채 한 상인

이 박승지를 향해서 물었다. “나도 실은 잘 모르오. 학이 물어왔다는 돌이오.” “거, 참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라는 돌인지 이름을 아시오?” 그러자 키가 큰 상인이 집 짓 입맛을 다시며 입을 열었다. “정말, 이 돌은 천하의 보물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이 끊어져 죽었을 때, 이 돌을 가슴에 품어주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희구한 돌이지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사라져간 혼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돌이라 하여, 환혼석이라 부르는 돌이죠.” 키작은 상인도 아는 체를 하였다. “이 돌은 정말 진귀하여 아무데서나 나는 돌이 아니요. 서해 유사 지경서 나는 것이니 천년에 하나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생명의 가슴속에 품어주면 반드시 살아나는 신비스런 돌입니다.” 두 상인은 박승지가 부러워서 못견디어 했다. “그래, 이 돌을 얼마에 사시겠오?”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서로 고개만 기웃거리던 두 상인중 키 큰 상인이 입을 열었다. “이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천금이라도 아까울 것 없으니 부르는 게 그저 값이지요.” “그렇다면 천금을 내고 사시겠오?” 천금만 가진다면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었다. 박승지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두 상인은 엄청난 값이라 당장 살 수가 없었다. 두 상인은 의논 끝에 이틀 후에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다고 돌아갔다. “꼭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일째 되는 아침엔 꼭 돈 천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오면서도 거듭거듭 꼭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며 돌아갔다. 상인이 돌아가자 박승지는 앞으로 이틀후면 굴러 들어올 첨금의 돈을 생각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안절부절을 못하고 돌을 만지고 비비며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흐뭇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다. “가만있자, 돌을 좀 깨끗이 닦아 뒤편에 놔둬야겠다. 왜 이리 광택이 없을까? 오라, 학의 똥이 묻어서 그렇군, 그래 물을 떠다 씻을까? 음, 비단수건이 좋겠군” 박승지는 시간만 있으면 돌을 주물럭거리며 돌을 닦곤했다. 박승지의 정성은 대단하였다. 그래서 광택이 없던 돌은 차츰 깨끗해지고 윤이나기 시작했다. 돌에 완전히 윤기가 돌아 번쩍번쩍 하였다. 그래 박승지는 돌속에 또 하나의 조그만 돌이 튀어나와 있음을 보았다. “아니 이걸 뭐야? 오라, 쓸데없는 잡돌인가 보군. 천하에 없는 보물답지 않게 시리…….” 박승지는 돌을 말끔히 닦아놓고 이틀을 보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 갔으나 그 동안 박승지는 잠 한잠 자지 않았다. 가슴가득 부풀어 오른 그의 몸은 하늘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깨끗이 닦아 놓은 환혼석을 비단 형겅에 싸고 또 싸서 께 속에 집어 넣고 자물쇠로 꼭꼭 채워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 드디어 상인과 약속한 날이 왔다. 박승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인을 기다렸다. 약속대로 상인들은 아침 햇살이 미처 퍼지기도 전에 박승지의 방문을 드드렸다. “계십니까?” 방문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틀림없이 상인들의 목소리였다. 박승지는 황급히 일어나 상인들을 맞아들였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셨구려.” “상인이 거짓말을 한데서야 어디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천냥을 갖고 왔으니 챙겨 받으십시오.” 박승지는 사람을 불러 상인이 가져온 돈을 챙겨 받도록 이르고는 두 상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인들은 환혼석을 빨리 가져오라는 듯한 눈치다. 박승지는 골방에 손수 들어가 보물이 든 께짜를 들고 나왔다. “거 참, 이상한 일인걸, 꺼내 보여 주십시오” 두 상인의 얼굴은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다. 하더니 이내 고개를 기웃거리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상하다는 말에 박승지도 또한 의아해졌다. “환혼석이 아무리 께속에 들었다해도 그 은은한 광채는 새로 나오는 법인데 그 빛이 없으니 말이오” 키 작은 상인의 말에 박승지는 빙그레 웃었다. “보물인줄 안 이상 그냥 두기 무엇해서 숨과 비단 형겅으로 싸두었더니 그런가 보되다” 박승지는 께를 열고 환혼석을 꺼냈다. “자, 두분 손수 들고 보시오” 박

승지는 희색이 만연해 하며 두 상인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상인의 얼굴에 갑자기 핏기가 가시는 것이었다. “허어! 이거 큰일이로군! 아니, 이거…….” 박승지는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눈치를 알았다. “도대체 어째서 그러시오? 살 생각이 없어졌소?” “이 둘은 이젠 환혼석이 아니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어찌자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두 상인은 맥이 빠진채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었다. “아니 그대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오? 소용이 없게 되었다니…….” “이 둘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돌인데 그만 망가뜨리고 말았군요. 인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돌멩이에요.” “뭐라구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거요?” “사기 싫으면 그만두지 웬 트집을 잡소?” 그러나 이미 얼질러진 물이었다. 상인들은 무척 애석해 하며 돈을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갔다. 그 희귀한 돌은 박승지의 서투른 손으로 해서 그만 정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환혼석은 이미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돌조각이 되어 버렸다. 다만 죽은 학을 살려낸 이야기만이 오늘날까지 아산 지방에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돌을 그만 무식한 탓으로 망쳐버리고 말았으니 그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 아직까지 그 환혼석이 남아 있었다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지금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구원자 : 조중렬)

【온천동 설화 34】

청동고개

온양시 풍기동에 청동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다. 청동고개는 온양에서 구 온양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개로 그 높이가 257미터나 된다. 청동고개에 대해서 전하여 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였다고 한다. 이곳 청동고개 아래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며느리가 있었다. 그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고달팠지만 아무런 불평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무엇 하겠다고 그 늙은이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 홀로사는 며느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뿐만 아이였다. “내가 좋은 곳에 중매하겠으니 개가를 하게. 자네같이 인물 좋고 젊은 나이에 왜 개가를 하지 않나? 혹시,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딸린 것도 없는데 무슨 열녀라고 그 고집을 부리나?” 그녀를 아는 사람이면 곧잘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시부모를 두고 개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칠십이 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날로 죽을 것 같았다. 더구나, 여자가 한 남자만 섬겨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온 그녀로서는 아직 젊고 아이도 없지만 죽어도 이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만이 남편에 대한 도리이고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녀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살지만 가난한 살림을 젊은 여자가 혼자 꾸려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해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어느 집이나 먹고 살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 그녀의 집은 더욱 어려워졌다. 며느리는 산과 들로 나가 나물을 캐다가 죽을 쑤어 그것으로 연명을 해 왔지만 겨울철이 되면서 부터는 죽도 먹기가 힘들었다. 며느리는 자기가 굶

는 것은 괜찮지만, 늙은 시부모가 굶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불효하도 이만저만한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녀는 십리 밖에 있는 마을까지 찾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살기가 어려워서 밥한술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이마을 저마을로 3일간 헤매며 다녔다. 그러나 흉년으로 민심이 사나와진 사람들은 누구 한사람 인정을 베푸는 이가 없었다. “어쩌면 좋을까?” 며느리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고 것처럼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으나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어 마치 죄지은 사람같았다. “도대체 시부모들을 무슨 낫으로 본단 말인가?”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날씨마저 살을 에이는 듯하여 더욱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넘다가 개가 생쌀과 보리를 먹고 토해 놓은 것을 보았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답답하던 며느리는 얼른 그것을 주워 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으로 죽을 쑤어 시부모에게 드리려다 그만두었다. 마음이 꺼림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굶주림에 달고 있는 시부모를 보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것을 갖다 드리고 말았다. 그러나 괴로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천둥까지 하며 번개를 치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개위로 올라가 하늘의 명을 따르기로 하고 그곳에 엎드렸다. 그때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때 며느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고개위에 있는 바위가 두 조각이 나면서 그 속에서 누런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뜻밖의 일이라 놀랐지만 그것은 하늘이 자기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치마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늙은 시부모를 잘 모셨다고 한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마자 이곳 원님은 며느리를 불러 칭찬하고 후세사람들에게 이런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고개를 “청동고개”라 부르게 했다고 한다. 그것은 청동(당시 화폐를 만든 금속)과 같이 귀중한 금이 쏟아져 나왔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구연자 : 김성길)

【온천동 설화 35】

풍기리 유래

아산군 온양읍 풍기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충기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어느 가락한 효부 때문이라고 한다. 풍기리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백제시대 이곳에 기득이와 풍순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에 허덕이었지만 의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끼고 서로 도우면서 정답에 살아갔다. 더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용케 그것을 참고 견디었다. 그야말로 한쌍의 다정한 비둘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이들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늙은 부모들도 부족하이 없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기득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어떻게 해서던지 가난을 면해 보고자 그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더러는 곳은 일까지 맡아서 일을 했다. 풍순이는 풍순이대로 남편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틈만나면 샅바느질이라도 하여 한푼 두푼 모아갔다. 이리하여 그들은 살림을 조금씩 불려갔다. 이럴 때,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기득이와 풍순이까지도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빨리 5년만 지나라. 그때면 우리도 땡땡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득이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다지면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 정말 5년만 지나면 웬만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백제의 문주왕은 부왕인 개로왕이 고구려 군사들한테 참패하여 피살된 것을 복수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두 병정으로 징발하였다. 기득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기득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것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남들처럼 살게 되는데 그걸 못이루고 군대에 가니 야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할 수 없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할 수없이 가지만 곧 돌아 올테니까 염려말고 기다려” 기득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풍순이를 보고 이렇게 한마디 남겨놓고 훌훌 집을 떠났다. 풍순이는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가끔 뼈아프게 마음이 아픈일이 있어도 남편이 돌아온다는 희망아래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며 흥년이 들어 배고픔을 참고이기는 것도 기득이가 돌아온다는 희망아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 그러나,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던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 풍순이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그러나, 풍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모를 공경했다. 그동안 몇해는 남편이 벌여놓고간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것은 없는데다 일할 사람도 없으니 앞이 캄캄했다. 게다가 몇 년간 흥년이 거듭들어 죽을 먹기도 힘이 들었다. 품팔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흥년이 들어서 일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늙은 시부모를 굶기는 것이 더없이 가슴아팠다. 풍순이는 이웃마을에 가서 죽이라도 한사발 얻으려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살을 에일 듯이 불었다. 이해 따라 왜 이처럼 날씨조차 추운지 그는 자리에서 뽕뽕 얼어 붙는 것 같았다. 풍순이는 손을 비벼대며 이웃 마을에서 집집마다 동냥을 하였지만 죽 한그릇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추운 방에서 자기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려니 길가에 개가 먹고 토한 보리밥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담아다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시부모에게 드렸다.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벽력이 진동했다. 풍순이는 시부모에게 드린 밥이 불순했던 것을 깨닫고 불효한 죄를 벼락으로 벌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하늘에서는 “효녀! 너에게 선물을 주노니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상자를 떨어 뜨렸다. 그는 그것으로 잘 살수 있었다. 그뒤 풍순이와 기득이의 이름 첫 자를 따서 그곳을 “풍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구연자 : 정영숙)

【온천동 설화 36】

온양 온천수에 얽힌 전설

옛날, 온양에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삼대독자인 외아들이 있었다. 재산도 없는 절름발이이고 보니 살기는 어려웠으나 노파는 어서 빨리 아들을 키워 대를 잇게 하려는 희망 속에서 살았다. 아들이 나이가 들자 혼처를 구하려 했으나 모두들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다 절름발이인 시어머니에게는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노파는 실망하지 않고 중매장에게 간청을 하였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18세가 되었다. 노파에게 간청을 받은 중매장은 혼인길이 막혀있는 쩡쨍이 딸을 가진 김침지에게 가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중매장은 외팔이 딸을 둔 황영감에게 가보았으나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에 중매장은 노파에게 더 이상 알아볼 곳이 없다고 하였다. 생각다 못한 노파는 절을 찾아 삼대독자의 짝을 찾아 주십사 열심히 불공을 드렸다. 그 노파는 불공을 드리니 석달째 되던 날 지쳐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때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정성이 지극타 하시며 아들이 장가를 못드는 이유를 노파에게 물었다. 노파가 대답하기를, “제가 절름발이라 그러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관세음보살은 “불공 드리는 순서가 틀렸다.”고 하며 “두 다리를 다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빌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 노파가 그 말대로 하니 정성이 지극하다 하며 관세음보살이 “소원을 들어준다.” 하고 지시하기를, “내일 마을 앞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을 터인즉 그 모양을 자세히 보고 살펴보면 다리를 고치는 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하고 사라졌다. 노파는 자에서 깨어나 이상히 여기며 절에서 내려와 마을앞에서 학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학은 어디선가 날아와 앉는데 절름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학은 한발로 깡충깡충 뛰기 시작하여 사흘을 그렇게 계속하였다. 그러더니 학은 언제 절름거렸냐는 듯이 걸어나와 날아가 버렸다. 노파가 그 학이 날아간 자리에 가보니 펄펄 끓는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노파는 괴상히 여기며 다리를 끓는 물속으로 넣으니 차츰 시원해지기 시작하였다. 열흘이 지난 뒤 다리는 신통하게 치료되었고 그후 아들은 가문좋은 처녀와 짝을 맺어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 다음부터 그 뜨거운 물에 병을 고치겠다고 너도 나도 몰려드는 바람에 이 신기한 물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구연자 : 정영숙)

다. 구온양시 마을 3 (권곡동)

1) 마을 개관

권곡동은 본래 백제시대에는 온주군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로 고려시대 때는 온주현 조선시대에는 온양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구렁이와 같고 또 마른 구렁이로 되었으므로 건구렁·권구렁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권곡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종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권곡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온양읍에 편입. 1986년 시로 승격되면서 권곡동(3통), 모종동(4통), 신동(2통)이었고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 설치로 아산시에 편입되었다.

권곡동은 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아파트의 건립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3개 법정동 <권곡동(6통), 모종동(9통), 신동(2통)> 에 17통 12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수는 5,155세대이며, 인구는 15,624명인 바, 남자 7,660명이고 여자는 7,964명이다. 그중 농가구 수는 700여 가구로서 총 가구의 14%에 불과하며 도심에 인접해 있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교육기관(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이 많고 농협·축협·우체국 등 공공시설들이 있다.(2001년

12월 31일 현재)

권곡동에는 문화재는 없지만 조상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이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교육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권곡동 설화 1】

동계당의 유래

옛날 어느 해 엄동설한에 남매거지가 동네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권곡동이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다. 두 거지가 구걸을 해가면서 지내다가 어느 집에 묵자고 하였으나 재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남매는 지금의 당집이 있는 곳이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한 까닭에 그곳에서 자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동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동네에 흉년이 들고,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은 일, 요절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동민 가운데 한 노인이 꿈에 백발노인이 현몽하여, 이러 이러한 곳에 가면 어린 남매가 죽어 있는데, 그 곳에 당집을 지어 그 혼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네가 살 수 있다고 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매 거지가 얼어죽은 자리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낸 다음부터는 마을에 우환이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해 겨울에 남매거지가 동네에 들어 왔다.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남매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당집이 있는 곳에서 얼어죽고, 나머지 하나는 이웃 신창면 수장리에서 얼어죽었다. 그 후 권곡동에서는 흉년이 들고 단명하는 자, 호랑이한테 물려 가는 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해 부자집에 도사가 들어와 시주를 한 다음 몇 년 전에 거지가 얼어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신을 모셔야 한다고 해서 그곳에 당집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마찬가지로 신창면 수장리에도 똑같은 흉년과 당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도사의 이야기에 따라 거지가 죽은 곳에 당집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 후 마을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계속하여?당고사?라 하는 동제를 지내왔다.

【권곡동 설화 2】

모종동 유래

모종동은 본래 못 마룻들에 있었으므로 못마루 또는 모종이라 하였다. 이곳에 옛날 큰 못이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윗쪽에 있는 마을을 윗모종리라 하였는데 이는 조씨가 살면서 주자가 된 후 신흥이라 불렀으며 아래 모종리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피난민촌(탕정수용소)이 있어서 6·25사변 때 이북에서 온 수천명의 피난민을 집단으로 살게 하였던 곳이다. 예부터 '피난민 수용소'라 불리던 모종리는 어느덧 한 부락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한낱 보잘 것 없는 초가집의 집산지에 불과했었다.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마구 휘돌아다니고 길 잃은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야말로 지저분한 것은 모두 갖춘 마을이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리 마을을 모두 이름하여 등신과 거지만 사는 곳이라 하여 '거지마을'이라

불렀다. 그런데 마을 동쪽에 ‘동신초등학교’가 세워졌다. 동쪽에 새로 짓는 학교란 뜻으로 ‘동신’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허나 타동네 사람들은 물론 타 학교 학생까지도 모두 ‘동신초등학교’라 놀려댔으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을 비롯해 어린 아이들은 물론 서로 도와가며 곳곳의 더러운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하수구도 놓고 하는 등 빈정 받고 살수는 없다고 열심히들 일을 했다.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모두가 팔을 걷고 마을을 위해 이것저것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했다. 지붕도 모두 초가에서 스테트로 바뀌고 연립주택도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회관도 세워지고 도로도 정비되어 갔다. 그야말로 급속히 변모하는 신천지였다. 그전에는 피난민들이 주로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아니 거의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고 또 이사를 오고 해서 이제는 ‘피난민 수용소’가 아니라 ‘변모하는 모종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다.

라. 구온양시 마을 4 (용화동)

1) 마을 개관

용화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화동, 하화동 일부와 용정동을 병합하여 용정동과 상화의 이름을 따서 용화리가 되었고, 1986년 온양시 승격에 따라 용화동의 명칭이 계속 유지되었다. 용화동에는 용화동 13개통, 신인동 2개통, 기산동 2개통, 초사동 2개통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그 밑으로 149개반으로 나뉜다. 용화동은 온양시로 승격 당시 만해도 7개통이었으나 지금은 13개통으로 늘어났다. 총 가구 수는 4,768개 가구이며 인구수는 15,204명(남자 7,624명 여자 7,580명)이다.(2001년 12월 31일 기준) 경지면적은 총 1,270ha로 답이 235ha 전이 201ha 임야가 616ha 기타 218ha이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2개소가 있다. 의료기관은 의원이 3곳, 치과병원이 1곳, 한방병원이 1곳으로 모두 5곳이다. 농협과 우체국이 각각 1개씩 있다.

【용화동 설화 1】

용화동 유래

어느 한 마을에 화순이라는 처녀와 용칠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마음씨가 고운 처녀 화순, 누구보다 화순을 아껴주는 용칠 둘이 사이는 누구보다도 가까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서로서로 아껴주는 사이였다. 화순이와 용칠이는 날마다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용칠이에게 말했다. 용칠이도 속으로 두려웠다. “나 먼데로 떠나.” 화순이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용칠의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물었다. “먼데로?” 그제야 용칠은 알아차린 듯 고개를 떨구었다. 둘은 서로 서로 아무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드디어 화순은 식을 올리고 떠났다. 화순이가 떠난 후 용칠은 이름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화순과 용 칠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용칠의 용자와 화순이의 화자를 따서 용화리라 불렀다고 한다.

【용화동 설화 2】

너더리 유래

용화동 한 마을은 옛날 관교리라 칭하였다. 마을 앞에는 큰 개울이 있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물난리에 온통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좋은 방법은 생각 내지 못했다. 결말을 맺지 못한 사또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이 떠오르면 알리라 하면서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마을에 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예쁘고 마음씨 착한 꽃분이가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장님이라 일도 할 수 없었다. 10살 조금 넘은 꽃분이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샅바느질도 하고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했다. 집 주인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싫은 기색을 짓지 않고 일을 잘했다. 하루는 잔치집에 갔다가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다하고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산길에 접어들어 더욱 어둡고 짐승들도 갖가지 소리를 내며 울어대니 꽃분이의 마음은 무서움이 가득해 덜덜 떨면서 산길을 재촉해 걸었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갈수록 험했다. 한참을 걷다보니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집에서 꽃분이 또래의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니 꽃분이를 맞았다. “낭자의 아버님은 장님이시지요?”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눈을 뜨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잘 사용하라고 하면서 파란 주머니를 주며 아버지의 눈에 대고 두 번 두들기라고 했다 한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앞으로 닥칠 물난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며 개울 중앙에다 다리를 놓을때 돌을 사용하지 말고 널빤지로 다리를 만들면 물난리가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꽃분이는 정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꿈인가 하고 손을 보니 파란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돌아온 꽃분이는 아버지 눈에 대고 두 번 두드렸더니 정말 눈이 떠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눈을 떠 꽃분이도 밝은 세상도 볼 수 있었다. 물난리 방지책을 사또께 아뢰어 다리를 놓았더니 정말 그해 여름에 물난리가 없었다.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꽃분이는 상금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널빤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널다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흔적 이 남아 있지 않다.

【용화동 설화 3】

회용리 유래

용화 9통 마을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과 천둥이 치면서 하늘높이 용이 솟았다고 한다. 그래서 용정리가 홍결이가 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용이 배방면 회용리 냇가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회용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용화동 설화 4】

갯바위 전설

신인동에 있는 갯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 이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특히 그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잘 시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위해 주어 그 마을에선 금슬이 좋은 부부로 평판이 나 있었다. 다만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 부부는 가난한 살림이나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 낭비하는 것도 늘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또 잘 살게 되었는데도 밭에 나아가 손수 일하고 길쌈질을 하는 아내가 왠지 불만스럽게 생각됐다. 그는 훗김에 동네에서 좀 떨어진 어느 주막에 가 술을 마셨다. 그 주막엔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욕심이 많고 셈이 많은 간교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온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의 불만을 꿰뚫어보고 이제는 잘살게 된 그의 재산이 탐나서 그의 곁에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꾀었다. 남편은 그의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다가 부인보다 예쁘고 또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여 그만 그녀의 꾀에 빠져 버렸다. 차츰 그는 외박하는 수가 늘어났고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주막에 있는 여자는 어느새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매일 졸라댔다. 한편 그의 아내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화내기는커녕 남편에게 그 여자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자고 했다. 그리하여 본부인과 작은 부인은 한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본부인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잘 대해 주었다. 한데 작은 부인은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매일매일 자꾸만 그 남편을 졸랐다. 멀리 도망가자고……. 그 남편은 처음엔 자기 부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 된다고 했지만 차츰 그 여인의 꾀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 둘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남편은 보약이라고 해서 본부인을 위해 지어왔는데 그 속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어느 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던 작은 부인은 손수 그녀가 약을 끓여서 본부인에게 갖다 주었다. 본부인은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약을 모두 마셨다. 약을 먹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남편과 작은 부인은 새벽이 되면 탄로가 날 것 같아 집에 있는 재물을 챙겨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도망을 쳤다. 그들이 마을 입구를 벗어나려 할 때 갑자기 조용했던 하늘이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그들 셋에게 물려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갯을 쓴 채 그대로 돌이 되어 갯바위라고 한다.

【용화동 설화 5】

물미 효자 이야기

옛날 만석이라는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만석은 효성이 지극하여 어려움을 참아 내며 곳곳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의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되었다. 만석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려운 살림에 별의별 약을 다 써 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있는 지 한달 후에 어머님께서 “애야 내가 잉어 한 마리만 먹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구나.”하시는 것이다. 그 동네에서 강까지의 수 백리였으며 겨울에 잉어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만석은 낚시 도구를 가지고 수 백리 눈길을 걸어갔다. 돌로 얼음을 깨고 고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깜박 조는 동안 잉어를 본 듯하여 눈을 떠보니 얼음 위에서 잉어가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만석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

며 천지신명께 감사드렸다. 만석은 어머니께 드릴 생각으로 잉어를 가슴에 조심스레 안고 바삐 가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보니 웬 노파가 쓰러져 있었다. “아니 이것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고는, “이봐 젊은이 나에게 잉어를 주오! 난 잉어가 필요해. 잉어 줘 주오.” 만석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가슴에 안고 가던 잉어를 뒤로 감추었다. 할머니는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만석은 심히 괴로웠다. 이것을 할머니께 주자니 어머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자니 할머니가 그냥 눈길에 쓰러져 돌아가실 텐데 만석은 깊이 생각하다가 ‘어머님께는 다시 강으로 가서 잡아다 드릴 수 있지만 돌아가 시게 된 할머니는…….’하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께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며 “만석아 집으로 가 보아라. 윗동네에 물이 들어올 테니 그곳에 가서 잡아다 어머님께 드려라.”하면서 사라졌다. 만석은 깜짝 놀라 쳐다보니 할머니는 온데 간데 없었다. 만석은 급히 마을로 가니 윗동네에 물이 들어왔다고 했으며 어머니의 병도 나았다 한다. 그리고 만석의 동네는 물이 들어오는 바로 옆 동네라 하여 물미라 한다고 한다.

마. 구온양시 마을 5 (온주동)

1) 마을 개관

온주동은 백제시대에는 온정,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로 고려시대에는 온주, 조선시대에는 온양군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아산군 온양면으로 1941년 3월 1일 온양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 1월 1일에 온양시 온주동으로 바뀌었고, 1995년 1월 1일 아산시 온주동으로 바뀌었다. 온주동은 읍내동(6통) 장촌동, 좌부동(6통), 법곡동(2통), 풍기동(4통), 남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6개 법정동에 20통 130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구수는 5,254가구이고, 인구수는 14,560명(남자 7,251명 여자 7,309명)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농가수는 720가구로 총 가구의 14%이며 시가지에 위치하여 도시화되어 있다. 교육기관은 온양초등학교, 온양여자중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가 있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537호의 당간지주가 있다. 이 당간지주의 건조연대는 고려초기이다. 그리고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제116호인 온주아문 및 동헌(조선후기)이 있고 기념물 제115호인 온양향교(조선시대)가 있다. 그리고 아산의 명산인 설화산이 좌부동에 우뚝 서 있다.

【온주동 설화 1】

성황사 유래

연산(당산)에는 토성으로 된 성터가 약 400m정도 남아 있는데 서편에는 일월성신과 자연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사직단 터가, 남서쪽 언덕에는 일찍이 빙고로 사용하였던 평곳재의 잔흔이 남아 있다. 현 온양초등학교 터는 온천동으로 시장이 옮겨가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장이 섰다고 한다. 그 터는 예전 주민들의 시장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역사적 사건으로

는 고려 고종 23년 (1236년)에 몽고군의 3차 침입 때 몽고군이 온수군을 공략하므로 온수군의 아전인 현려가 출전하여 적병 200여명을 죽이고 많은 병기를 빼앗았는데 고종이 이때에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연산에 있는 성황당에 도움으로 여겨 성황당을 성황사로 봉하였다 한다.

【온주동 설화 2】

능미의 유래

법곡동에 얽힌 이야기로 순종대왕의 일이다. 강설봉이라는 정승이 계셨는데 처를 잃어 상중이었다. 그날 마침 궁궐에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아 정승께서는 입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입궐은 했으나 상을 당한 터이라 묵묵히 앉아 계셨다. 임금님과 함께 회의하는 중에도 정승은 말 한마디 아니하셨다. 임금님께서 괴이히 여겨 그 사연을 물어 본 즉, “내상을 입고 입궐한 자가 무슨 말을 하겠사옵니까?” 정승이 대답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시길, “그럼 장례는 치루었는가?” 정승은, “장례는 무엇입니까? 신위주도 안잡아 냈습니다.” 임금 왈, “온양골에 내려가면 내가 신위주를 잡아 놓은 데가 있노라. 그곳에 가서 상을 치러라.”하시며 친히 하사하셨다. 정승께서 온양에 내려와 관가에 이 이야기를 하니 원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 정승께서는 임금님께 내리신 하사장을 제시했다. 친필로 신위주를 준 것을 확인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묘자리를 잡았다. 묘는 강경묘라 하는데 이 뜻은 강씨 정경부인의 묘이다. 그래서 법곡동에는 능묘가 있어 능미라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능미보다는 법곡동이라고 불리며, 뒷동산에 이방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방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온주동 설화 3】

벼락바위 전설

한 젊은이와 노모가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 해에는 또 가뭄이 들어 쌀 한줌 보리 한 톨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젊은이는 허약하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려 다녔으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난한 살림이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하루는 젊은이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와서 뜰에 똥을 누어 놓고 갔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저 개만큼도 못 해 드릴까? 젊은이는 한탄하며 무심히 개똥을 보았다. 희끗희끗 무엇인가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꽤 많았다. 젊은이는 굶주리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것을 골라 담았다. 몇 십 번을 씻었다. 그 보리쌀이 어디서 나왔건 오랜만에 보는 보리쌀이 반가웠다. 정성껏 밥을 지어 상을 차렸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어머니 앞으로 들고 가려니 낮이 뜨겁고 죄스러웠다. 젊은이는 보리쌀 두어 톨을 입에 넣어 보았다. 맛있었다. 젊은이는 상을 들고 어머니께 갔다. 어머니는 배고픈 참에 아주 맛있게 잡수셨다. 젊은이는 그런 어머니가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 그 후 젊은이는 죄스런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며칠 후 젊은이는 산 중턱에 조그만 집을 짓는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일을 하면 조금의 돈이라도 벌겠구나 하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다.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려오면서 천둥벼락이 쳤다. 번개가 노란 불을 품으며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어떤 농군이 소리쳤다. “이런 번개는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일 것이요.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은 몰려서시오.”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로들 몰려가라는 아우성뿐이었다. 젊은이는 문득 일전에 개똥에 석여 있던 보리쌀 생각이 났다. 분명히 그 보리쌀을 어머니께 드리게 한 것이 벌을 받을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묵히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멀리 달렸다. 한참을 지나 앞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곳까지 왔다. 바로 그때 번쩍이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다.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바위에 벼락 맞아 바위가 갈라지고 그사이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 바위를 벼락바위 또는 효자바위라 부른다. 그 후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젊은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젊은이는 그 금으로 잘 살수 있었고 더욱더 어머니께 효도를 하였다 한다. 지금은 그 바위가 풍기동에서 구온양 읍내동으로 가는 청댕이 고개에 남아있다.

【온주동 설화 4】

청동고개 유래

청동고개는 온양에서 읍내동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는 고개이다. 조선시대였다고 한다. 이곳 청동고개 아래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과부로 노시부모를 모시고 아무 불평 없이 가난하게 사는 한 며느리가 있었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에 대한 칭찬도 많았고 불쌍히 여겨 동정을 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시부모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고 말하여 개가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중용도 듣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시부모를 모시고 여자의 몸으로 살림을 꾸려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해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어느 집이나 먹고살기가 넉넉지 못했다. 그녀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쭉과 나물을 뜯기도 했으나 이제는 겨울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오늘도 집집마다 돌아 다녔으나 허탕이었다. 마침 개가 보리밥을 토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집에 와 깨끗이 씻어 시부모께 드리려 했다가 못 드렸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밥을 지어 드렸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자 그녀는 울 것이 왔다고 하며 고개를 었드렸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바위를 반으로 갈라놓고 말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곳에는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님이 가상히 여겨 그 고개를 청동고개라 이름을 붙였다 한다.

【온주동 설화 5】

풍기동 유래

풍기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어느 가락한 효부 때문이라고 한다. 백제 시대에 기득

이와 풍순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가난에 허덕이었지만 의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들에게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이들에 대한 효도도 지극해서 늙은 부모들도 부족함이 없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기득이와 풍순이까지도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 때 백제의 문주왕은 부왕인 개로왕이 고구려 군사들한테 참패하여 피살된 것을 복수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두 병정으로 징발하였다. 기득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기득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기득이는 집을 떠났다. 풍순이는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것처럼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 풍순이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풍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모를 공경했다. 그 동안 몇 해는 남편이 벌여놓고 간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것도 없는 데다 일할 사람도 없으니 앞이 캄캄했다. 게다가 몇 년간 흉년이 거듭 들어 죽을 먹기도 힘들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늙은 시부모를 굶기는 것이 더 없이 가슴 아팠다. 어느 날 밥을 얻지 못했다. 추운 방에서 자기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다가 개가 토한 보리밥을 물에 씻어 시부모님께 드렸다. 그만큼 풍순이는 시부모님을 잘 공양하면서 살았다. 그 후 기득이와 풍순이의 이름 첫 자를 따서 풍기리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1) 퇴해 놓은 : 토해 놓은

2) 새기지 : 삭히지, 소화하지

3) 세경황세 : 소경 행세

4) 모이 : 묘

5) 금시발백 : 금시발복(今時發福) - 바로 복이 생김

6) 다리 : 주로 머리숱이 적은 여자들이 숱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꼭지를 맨 턱 머리

7) 상가승무노인탄(喪家僧舞老人嘆)

8) 今日今夜에 百年期約

今日今夜에 百年期約이면 故夫는 黃泉鳴이라

9) 명전 : 명정(銘旌)

10)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잘못.